찾았다. 내 신부. 나와 함께 가줘야겠어.때는 여름의 끝자락,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하늘이었다.그즈음의 하늘은 히스테릭하다.태양, 낮에는 여름답게 이글이글 들끓다가도 달이 뜨는 밤이 되면 가을답게 온 열기를 빼고 식어버린다.조용하고, 잔잔하고, 찬 밤하늘.반복되는 작열과 소멸, 그리고 돌변하는 찰나 또한 순식간이다. 순식간이며,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 발작 같은 것.야누스의 얼굴, 그것은 미치광이 같다.보는 사람마저 미치게 하는 제대로 된 미치광이 하늘.저녁나절, 거리를 걷다가도 문득 하늘을 보며 나는 우주를 생각한다.늘 그렇다.내가 사는 세계 밖에는 우주가 있고 별이 있고, 듣기로는 이 무수한 별 가운데 어떤 별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며, 그들이 있는 세계로 가려면 우주선을 타고 가야 한다고 했다.그리고 1969년, 인간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진짜로 달에 가기도 했고.달 착륙.그것은 인간이 지구의 세계 말고도 다른 세계로도 갈 수 있다는 의미기도 했다.하지만 다들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우리가 사는 세계 밖에는 우주가 있고, 별이 있고, 별에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세계와 이세계는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이다.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선이 없어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 ‘어떤 통로’를 진짜로 경험했었다.나, 그리고 쌍둥이 오빠 ‘유 탁’.우리는 정말로 우주선 없이, 그곳에 존재했었다.때는 여름의 끝자락, 초승달이 뜬 밤의 하늘이었다.정말이지 초승달 말고는 구름도 별도 없는 썰렁한 하늘이었다.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니, 나는 그게 인위적인 기분이라 어쩐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조용한 골목, 탁이와 나, 우리는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는 멍하니 하늘을 보며 걸었고 탁이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걸었다.지갑은 아까 우리가 어떤 아저씨한테서 소매치기한 것이었다.“젠장.”“빨갛네.”우리는 동시에 그렇게 말했다.탁이가 젠장이라고 말해서 나는 지갑에 들은 현금이 탁이의 성에 차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지만 나는 초승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계속 걸었다.왜냐하면 그날 내가 본 초승달은 열아홉 평생 살면서 제일 붉었던 까닭이었다.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오목한 모양의 달, 달도 붉고 달 언저리의 달무리도 붉은빛이었다.핏빛.마치 달이 피를 흘리는 것만 같았다.묘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초승달 아래쪽 끝, 그 뾰족한 부분이 길게 늘어나기 시작했다.길게- 길게- 늘어나더니 여러 갈래로 갈라졌는데 그것은 이파리가 없는 담쟁이덩굴이 자라는 형상이었다.핏빛의 줄기가 무서운 기세로 뻗어 나갔다.끝이 또르르 말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내뻗치면서 온 하늘을 타고 기어올랐다.이어지고, 이어지고, 그것은 마치 하늘을 덮은 혈관 같았고 이러다 우주는 초승달 하나에 온 전체가 삼켜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는 그만 가다 말고 자리에서 우뚝 섰다.“아, 잡아먹히겠다.”속으로만 말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내뱉고 말았다. 내뱉고서 나는 아차 했다.왜냐하면, 내가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면 탁이는 왜? 라고 물을 테고 나는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나는 저 하늘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종종 환상을 봤다. 그러면 나는 내가 본 것을 탁이한테 얘기했고 그러면 탁이는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늘 이런 식이었다.늘 이런 식으로 나는 꿈속에 빠지는 쪽이었고 탁이는 그 꿈을 깨뜨리는 쪽이었다.하지만 난 단 한 번도 내가 본 것이 가짜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야옹. 가로등 밑, 몸통이 온통 까만 고양이의 눈은 아몬드 모양이다.나는 고양이한테서 눈을 돌려 탁이를 보았다. 내가 잡아먹히겠다고 엉뚱한 소릴 했으니, 왜, 라고 물을 나의 쌍둥이 오빠.오빠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빤히 보고 있었다.피부가 하얀 오빠의 옆얼굴, 가지런하고 긴 속눈썹이 무척이나 새카맸다.“왜?”왜? 라고 말한 쪽은 내 쪽이었다.그도 그럴 것이 오빠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인 양 하늘만 노려봤다.원래대로라면 왜? 라고 물을 사람은 오빠인데 오빠가 저러고만 있으니, 나는 오빠가 왜? 라고 묻지 않는지 궁금했다.오빠의 어깨, 아래로 쭉 뻗은 팔, 오른손에는 아까 훔친 지갑이, 왼손에는 몇 장의 지폐가 쥐어져 있었다.“너도 봤지?”오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다.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당연히 나도 봤을 거라는 의미가 담긴 말투였다.너도 봤지? 듣자마자 나는 오빠도 봤다는 것을 알았다.초승달, 붉은빛, 그리고 환상.오빠도 봤다면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나는 얼른 다시 하늘을 보았다. 보았지만 이미 환상은 사라지고 없었다.싸늘한 밤하늘, 흰 기가 도는 노란 초승달 주위로 별이 있고 구름이 있었다.늘 내가 봐왔던 그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봤구나?”환상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환상이 아니었다.기뻤다. 이제껏 나 혼자서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거짓말 같았던 진짜를 이제는 오빠도 한통속이 되어 같이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어떻게 보면 당연했다.나와 탁이는 쌍둥이니까,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몸체에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가 그러하듯 내가 봤다면 탁이도 볼 수 있어야 했다.자각.나는 드디어 탁이가 자각하여 나와 같아졌다고 생각했다.그래서 탁이가 너도 봤지? 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다.으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났을 뿐,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아주 착실하게 그리고 올바르게.야옹. 아까 그 고양이, 탁이가 고양이를 힐끔 보더니 가지고 있던 지갑을 고양이한테 신경질 부리듯 던졌고, 가까스로 지갑을 피한 고양이는 골목 사잇길로 모습을 감추었다.“빌어먹을.”가자. 말하는 탁이의 뒷모습을 빤히 보다가 나는 쿡쿡 웃었다.내가 뒤따라 오지 않고 쿡쿡 웃기만 하자, 탁이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한쪽 눈썹을 치켜 올린, 기분 나쁘다는 표정에 교복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자세가 아주 불량스러웠다.나는 탁이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알았다. 탁이는 내가 환상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저런 표정을 지었다.“거봐. 내 말이 맞지?”“시끄러워.”나는 쿡쿡 웃었다.“너 빨리 안 오면 떼놓고 간다.”탁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팩 뒤돌아 저만치 가버렸고, 나는 얼른 탁이 뒤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다다닥 뛰는 발소리.그 소리를 듣고 탁이가 뒤돌아서서 나를 기다려주었다.두 손은 여전히 주머니에서 빼지 않은 채였다.달빛, 골목길, 탁이의 그림자, 기다랗고 날씬한 탁이의 그림자를 밟으며 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그리고 우주를 생각했다.물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외롭기 그지없는.그것이 마지막이었다.그러니까, 나와 탁이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같이 본 환상은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그날 나는 탁이가 이제 진짜로 나와 같아졌다고, 이것은 확실한 결속이라고 생각했다.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분리.탁이의 자각은 곧 우리의 분리를 의미했다.야누스의 몸통이 갈라지듯, 탁이는 새로 태어났고, 나와 같아졌고, 그리고 똑같아진 우리는 다시는 서로 붙을 수 없는 각자의 존재가 된 것이다.그 어떤 통로.그 어떤 통로는 우리가 말한 환상과 같은 것이었다.그리고 탁이와 나는 그 어떤 통로를 동시에 보았다.우리는 함께 보았고, 함께 그 통로를 통하여 그곳으로 갔다.하지만 그 통로 이후로 우리는 더는 함께가 아니었다.묘한 도령의 남자, 물보라, 저편에서 탁이가 이쪽으로 뛰어들었고, 우리는 함께 휩쓸렸고, 잠시 잠깐 이었지만 나는 숨이 이대로 멎는 줄 알았다.그리고 겨우 눈을 떴을 때 탁이는 내 옆에 없었다.사라졌다.그날 나는 탁이를 잃고 말았다. 찾았다. 내 신부. 나와 함께 가줘야겠어.여기는 혜류경.혜류경은 신계, 천지간이 이어지는 중심지로서 이곳은 온갖 별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곳이었다.그 별이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빛을 내며, 어디로 가고, 어떤 별들과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끝이 나는지,이곳 혜류경에서는 단 하나의 별도 빠짐없이 그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즉,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장소로서 세계의 운명은 이곳 혜류경에서, 오직 신족만이 혜류경에 출입하여 그 앞날을 헤아릴 수 있었다.신족, 인간족, 요괴족.세 종족이 어울려 사는 이 세계를 그들은 ‘환상국’이라 불렀다.환상국은 신계, 중간계, 마계로 나뉘었고, 신계에서는 신족이, 중간계에는 인간족이, 마계에는 요괴족이 살았다.하지만 각 종족이 서로의 영역을 오고 갈 수 없다든지, 종족이 종족을 지배하는 신분체제는 아니었다.환상국은 자유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세계였다.하지만, 태어나기를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능력의 차이는 있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종족 간의 갈등은 부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었다.그것은 각자가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으며,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었다.수, 금, 토, 화, 목.우주를 운행하는 오행의 기를 타고난 종족을 신족이라 불렀다.신족은 스스로가 타고난 영기가 있었고, 그 물질계와 정신계가 하나가 된 경지에 이른 초월적 존재였다.그들이 가진 능력은 특별했고 우월했으며 다른 종족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들만의 것이었다.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은 신족만이 아니었는데 요괴족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을 가진 종족이었다.하지만 태초의 근원이 마계인 요괴족은 천성이 잡스러웠다.과거 그들의 조상은 생김새도 짐승에 가까웠고 지성도 심성도 없는 괴물이었으며 인간족을 먹기도 했다.그랬던 것이 점차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면서 현재로서는 생김새도 신족, 인간족과 비슷해지고 식인을 금기시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세 종족 간의 가장 나약한 존재는 인간족이었다.신족과 요괴족 사이에서 인간족은 늘 두려워했고 몸을 사려야 했다.그랬기에 그들은 요괴족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신족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했다.문제는 항상 신족과 요괴족 간의 대립이었다.중간에 낀 인간족을 사이에 두고, 마계에 사는 요괴족은 신계를 탐했고, 신계에 사는 신족은 마계를 미개하다 여겨 마계를 평정하고자 했다.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환상국은 자유로운 세계를 추구했다.속으로는 다른 어떤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다들 입으로는 자유, 평등, 조화를 떠들었으나 실상은 폐쇄적이어서 보이지 않는 종족 간의 차별이 존재했다.신족은 신족이, 요괴족은 요괴족이, 인간족은 인간족이 아니면 절대로 결합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그 증거가 아주 드물긴 하지만 서로 다른 종족 간에 태어난 아이였다.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신계, 중간계, 마계, 환상국 어디에서도 있을 곳이 없었다.멸시, 환멸, 조롱, 환상국 종족들은 그들을 ‘월흔의 족속’,새벽녘 거의 사라져가는 달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 부르며 그렇게 사라져가길 원했다.순수혈통이 아닌 다른 피가 섞인 족속은 죄다 월흔이라 칭했다.다른 종으로부터 월흔을 구분하는 방법은 눈동자 색깔이었는데, 그들의 양쪽 눈동자 색깔은 서로 달랐다.월흔의 족속이 다른 종족의 눈 밖에 난 존재가 된 데에는 그러한 까닭도 있었지만 가장 불길한 점은 바로, 그들의 생과 사는 이곳 혜류경에는 없다는 것이었다.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자, 한낱 그림자와 같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운명,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기에 아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두려워했다.월흔의 족속은 그런 존재였다.그것은 태곳적부터 이어져 온 낙인과도 같은 것인데,전해 내려오는 계시에 따르면 몇몇 안 되는 월흔의 족속 중에 선택받은 하나가 혜류경에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했다.그것은 바로 혜류경에 달이 뜨는 때였다.초승달 모양의 그달은 새로 태어난 달이라 하여 초생의 달이라 하였다.초생의 달.이는 ‘적귀’의 출현을 의미했다.‘적귀’는 신과 요괴의 결합체였다.태어날 적에는 다른 월흔들 처럼 혜류경에 보이지 않았다가 ‘각’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혜류경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이다.존재가 드러난 ‘적귀’는 ‘각’에 의해 자각을 한다.적귀가 자각을 하면 요괴로서 새로 태어나고 그의 힘은 신족과 요괴족이 가진 능력을 통틀어 한계를 모른다고 한다.적귀를 차지하는 자는 그의 주인이 된다.그것은 곧 적귀의 힘을 무기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적귀와 각.그 둘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 둘의 선택에 달린 문제였다.또한, 그것은 운명이기도 했으며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었다.혜류경.오직 별들만이 탄생과 소멸이 허락된 혜류경에 달이 태어났다.갓 태어난 그달은 아래는 볼록하고 위는 오목하고 가느다랬으며 양 끝이 날카로운,초승달 모양으로 붉은 기가 도는 흰빛을 띠었다.깎아지른 절벽이 첩첩이 우뚝 솟아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혜류경은 고요하다.쉼 없이 운행하는 별 무리,별 무리 가운데 유일무이한 달을 보던 여와가 눈을 찡그렸다.그녀는 토령을 수행한 신족으로 평소 속내를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았다.하지만 초생의 달이 나타난 지금, 무언가 심하게 동요하는 눈치였다.절벽의 끝.큰 키에 늘씬하게 쭉 뻗은 팔다리, 새까맣고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와는 뒤로 팩 돌아 청아 곁으로 갔다.“그러니까 저게 점점 붉어질 거란 말이지?”“응. 각이 나타났어.”각이 나타났어. 말하는 청아는 목령을 수행한 신족이었다.그녀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키는 여와의 절반이 될까 말까 했으며 물결치는 듯한 금발은 키보다 더 자라서 땅에 끌렸다.청아는 혜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읽을 줄 알았다.즉 점성술사로서 각의 출현과 적귀의 자각을 예언한 것이다.적귀가 자각을 하면, 초생의 달은 완벽한 붉은 색으로 변할 터였다.“이제 곧 그 둘이 만날 거야. 적귀가 자각을 하면...”자각을 하면? 여와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렸다.청아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데 허공이 반으로 갈렸다.틈은 세로로 길었고 점점 동그랗게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화랑이 튀어나왔다.헤이! 딱 봐도 풍기는 분위기가 산만한 화랑 뒤로 나기가 모습을 드러내었다.그는 화랑과 달리 탁, 하고 절도있는 자세로 착지했다.원숭이 같긴. 여와는 실실 웃어대는 화랑을 힐끔 흘겨보고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다. 자각을 하면? 눈빛으로 청아에게 다음 말을 재촉했다.“죽인다.”물론 이 몸이. 대답은 청아에게 요구했는데 화랑이 끼어들었다.여와는 화랑을 째려봤다.화랑은 화령을 수행한 신족이었다.뾰족한 턱, 턱선까지 내려오는 빨강 머리는 곱슬곱슬했고 외까풀에 눈동자 또한 붉었는데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하얘서 머리카락과 눈동자 색이 유난히 튀었다.호리호리한 소년 같은 체구 주제에 의외로 힘이 세고 몸짓이 재빠르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하는 짓도 늘 대책 없이 굴어서, 그가 그럴 때마다 여와는 그를 미친 원숭이라고 신경질을 부렸다.네가 뭐라고 죽인다 만다야? 여와는 화랑의 뒤통수를 치려고 늘씬한 팔을 휘둘렀다.휘둘렀지만 손바닥이 닿으려는 찰나, 화랑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하더니 공중제비를 돌아 아예 저만치 떨어졌다.그리고는 히히 웃어 보이며 여와를 약 올렸다.미친 원숭이, 너야말로 내가 죽인다.“포획인가?”화랑에게 달려들려는 여와를 나기가 제지했다.그는 여와를 번쩍 들더니 한쪽 어깨에 들쳐 매었다.포획인가? 청아에게 묻는 그의 표정은 아주 진지했는데 여와가 그의 등을 마구 쳐 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그는 쇠를 수행한 신족이었다.말수가 적은 그는 스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민머리에 이목구비는 날카로웠으며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은색이었다.이거 놔! 깡통! 여와는 손힘이 무척 세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등뼈가 박살 날지도 모른다고 나기는 생각을 했다.그는 영력을 써서 자신의 몸체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퍽퍽, 때리는 소리가 탕탕하는 쇳소리로 변하자 여와는 그제야 때리기를 멈췄다.여와가 말했다.“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청아에게 집중한다.초생의 달, 청아는 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하얗고 조그만 얼굴, 복숭아색 입술은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약간 더 도톰했다.“적귀가 자각을 하면, 다들 그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요괴족도, 인간족도, 서로 차지하려고 들겠지.”그 야만하고 나약한 것들이 무슨 재주로? 라고 여와가 말하고, 그렇다면 큰일이군, 라고 나기가 고개를 끄덕였다.나기가 하는 소리를 듣고 여와는 기가 막힌다는 얼굴을 했다.그녀는 여전히 나기의 어깨에 걸려있는 모양새였다.“큰일 같은 소리. 그럴 리가 없잖아. 멍청하긴.”신경질을 내며 축 늘어져 있던 상체를 번쩍 일으켜 그의 어깨에서 내려왔다.그녀는 청아와 나기의 사이에 섰다.“적귀는 우리 거야.”인간족 따위, 손가락 하나 튕기면 끝이야. 문제는 요괴 나부랭이들이지.그 야만인들한테 환상국을 넘겨줄 수야 없지.그렇게 말하는 여와의 의지에 찬 갈색 눈동자, 그 눈동자를 초생의 달이 꽉 채웠다.청아가 달에서 눈을 떼고는 고개를 돌려 여와를 바라보았다.“각이 가진 표식이 있어.”표식? 여와가 청아를 돌아봤고, 청아가 검지를 들어 초생의 달을 가리켰다.저렇게 생긴 모양의 붉은 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각은 중간계에 있어. 라고 실눈을 뜨고 말하는 청아의 눈동자는 초록색이다.그녀는 각을 찾으면 적귀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왜냐하면 각과 적귀는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듯 만날 운명이기 때문이고, 그 둘이 만나면 적귀는 이 세계를 파멸시키는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다.“각과 적귀라... 그게 환상국의 파멸이 될지, 평정이 될지, 어떨지는 일단 둘 다 손에 넣고 봐야겠지.”지금쯤이면 각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중간계가 뒤숭숭할 것이다.오랜 옛날부터 각과 적귀에 대한 예언은 신족, 요괴족, 인간족, 모두의 관심사였다.적귀의 눈을 뜨게 할 각이 나타났다는 계시가 떨어졌으니, 그 둘을 차지하려고 모두 혈안이 되어있을 것이다.다음은? 다음은 어쩔 셈이지? 나기가 그렇게 묻고,여와가 뭐라고 말하려고 입을 떼려는데,“내가 죽인다!”화랑이 위에서 뚝 떨어져 여와와 나기 사이를 가로 막고 섰다.“적귀든 각이든 둘 다 찾아내서 죽이겠어.”이렇게 말하면서 후, 하고 입바람을 불자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휙, 흔들렸다.화랑의 손가락은 길고 하얗다.검지와 중지를 뻗어 허공에 대고 짧게 사선을 그리자, 맞은편 절벽산에 화르륵 화염이 붙었다.산 전체를 감싼 불꽃은 활활 타올랐다.청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고 나기는 그러려니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먼 곳에 시선을 두었다.“아주 싹,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겠어.”미친 원숭이! 씩 웃어대는 화랑의 뒤통수를 여와가 후려쳤다.화랑의 허리가 휘청하며 앞으로 꺾였고, 당장 끄지 못해! 불꽃을 가리키며 여와가 영력을 거둬들일 것을 명령했지만 화랑은 말을 듣지 않았다.말을 듣기는커녕, 왜 때리는데? 망할 할망구, 라고 말하면서 뱁새 눈을 뜨고 여와를 흘겨보았다.“이러니까 소백이 싫어하지.”맞은 뒤통수를 문지르니 혹이 만져졌다.소백은 물을 수령한 신족이었다.여와는 그를 매우 좋아했는데, 여와가 대놓고 마음을 몇 번이고 표현했는데도 소백은 매번 실실 웃으면서 은근슬쩍 빠져나갔다.소백이 싫어하지. 여기서 여와는 머리꼭지가 확 돌았다.그 낌새를 눈치채고 나기는 청아가 있는 절벽 끝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다.청아를 안아 들고 여와와 화랑한테서 저만치 거리를 두었다.“시... 싫어하... 싫어하는 거 아냐!!”여와의 발끝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땅이 갈라지며 뻗어나갔다.사방으로 퍼지는 기다란 틈새는 화랑을 향해 돌진했고, 화랑이 어디에도 발을 딛지 못하도록 절벽 땅은 조각조각 부서졌다.허공에 붕 떠오른 땅의 파편들.아래로는 끝이 보이지 않은 암흑이었다.무수한 파편 가운데, 파편 하나에 화랑은 발끝을 대고 서 있었다.조각이 사람 머리통만 한 크기라 아슬아슬해 보였지만 매우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자세였다.일자로 쭉 뻗은 몸체, 팔짱을 끼고 만면에 미소를 띤 표정에는 여유마저 가득했다.여와가 눈짓을 하자, 땅 조각 하나가 휙 하고 화랑에게 날아들었고, 화랑은 그것을 몸을 틀어 가볍게 피했다.이어서 펄쩍 뛰어올라 다른 파편으로 장소를 옮겼다.그 뒤를 따라 땅의 파편들이 마구 달려들어 화랑을 공격했다.화랑은 여기저기 파편을 옮겨 다니며 날아드는 땅 조각들을 피해 다녔다.그는 신이 난다는 듯 폴짝폴짝 잘도 뛰어다녔는데 깔깔깔 웃어대는 소리가 골짜기 사이사이에 울려 퍼졌다.아까 화랑이 불을 붙인 절벽산은 여전히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화랑이 파편 하나에 발을 딛으려는 순간 여와가 팔을 휘둘렀다.퍽 하며 파편이 박살 나면서 발 디딜 곳이 없어진 화랑의 몸이 아래로 푹 꺼졌다.그러나 그렇게 곤두박질치면서도 화랑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그대로였다.이때 청아가 팔 하나를 뻗어 들었다.폭이 넓고 긴 소맷자락, 보일 듯 말 듯 한 손가락은 하얗고 자그맣고, 소매 안에서 나무줄기가 휘리릭 하고 튀어나왔다.투박하고 거친 질감, 짙은 고동색, 나무줄기는 무서운 기세로 전진하더니 순식간에 화랑의 몸체를 감았다.청아가 뻗었던 팔을 안으로 꺾어 나무줄기를 끌어당겼다.이얏호! 몸이 꽁꽁 묶인 화랑이 수욱- 하고 튀어 올라왔고, 그는 그들이 딛고 선 땅에 가뿐하게 착지했다.여와는 청아에게 저런 망나니를 왜 감싸주냐고 원망하는 눈초리를 보냈다.보냈으나, 청아는 나기의 품 안에서 빙긋 웃기만 했다.늘 그랬다.청아는 저렇게 화랑의 뒤에서 화랑이 치는 장난을 받아주었다.그것을 알기에 화랑은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도 청아가 이렇게 해줄 줄 알고 히히거렸던 것이다.스스로 힘을 써서 자기 몸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쓰지 않고 마음 놓고 즐긴 셈이다.흥! 여와가 고개를 팩 돌리더니, 꽁꽁 묶여 있는 화랑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미친 원숭이! 빨리 저 불부터...”빨리 저 불부터 끄지 못해! 라고 말을 이으려는데, 화랑이 높이 뛰어오르더니 회전하여 여와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착지했다.그는 여전히 나무줄기에 묶여 청아와 이어진 꼴이었다.동작이 너무 재빨라 여와는 앞으로 가다 말고 멈칫 섰다.여와의 뒤에 선 화랑이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싫어”하고 귓속에 입바람을 불어넣었다.이어서 두 팔은 포박상태지만 검지와 중지를 살짝 까딱하니,나무줄기에 화르륵 불이 붙었다.툭 하고 나무줄기가 끊겼고, 재빨리 화력을 거두고는 저만치 몸을 날려 달아났다.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다.청아와 나기는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었고,여와는 그대로 몸이 굳어있었는데 온몸에 닭살이 돋아있었다.활활 타오르는 맞은 편의 커다란 불꽃.화랑은 깡총깡총 도망가더니, 절벽 끝에서 손가락 두 개와 입을 써서 삐익하고 소리를 냈다.그 소리를 듣고 저편에서 신수가 모습을 드러냈다.주작이었다.긴 목에 날씬한 몸체는 붉고, 활짝 펼친 날개는 불꽃을 닮은 주작은 단 몇 번의 날갯짓만으로도 화랑이 있는 곳까지 날아왔다.휘익- 하고 주작이 절벽 앞을 쏜살같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화랑이 펄쩍 뛰어 신수의 등에 올라탔다.올라타자마자 화랑을 태운 주작이 하나의 점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도대체 소백은 어디 있는 거야!”정신을 차린 여와가 불꽃에 휩싸인 절벽산을 가리키며 소백을 찾았다.소백은 물을 수행한 신족이니 저 불꽃을 끌 수 있을 일이었다.그러니 소백더러 해결을 보라는 의미의 손가락질이었다.청아와 나기가 서로 마주 보았다.둘 다, 너는 알고 있니? 라는 눈빛이었으나 둘 다 모르는 눈치였다.그러고 보니 소백이 보이지 않았다.오늘 아침에 여와가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혜류경에 다들 모이라는 얘기를 했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전했는데 소백이 아침부터 보이지 않아 그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누가 하기로 했더라?“화랑!”그랬다. 화랑이었다.“내가 할 게”라며 굳이 나서기에 믿고 맡겼더니 여기저기 나돌아다니며 노느라 깜빡한 모양이었다.이것으로 시커멓게 탄 산 하나가 생겼다.혜류경에 그런 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화랑의 대책 없는 장난질 탓에 산 하나를 통째로 없애야 하는 수고를 하게 되었다.미친, 미친, 미친 원숭이! 발을 동동 구르는 여와를, 청아와 나기는 난감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나기는 가만히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신부를 찾으러 가겠어, 며칠 전에 소백이 나기에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났다.-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내 신부가 나타났어. 나는 그녀를 찾으러 가겠어.이렇게 말하고는 그 후로부터는 보이지 않았다.소백은 기본적으로 상냥하고 온화하지만 실실 웃는 겉모습과 달리 속은 알 수 없는 정체 모호한 성격이다.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살벌한 태도도 서슴지 않았다.게다가 의외로 엉뚱하고 낭만적인 구석이 있었다.그런 소백이 자기 여자를 찾겠다며 훌쩍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잔뜩 화가 난 여와는 화랑이 사라진 곳을 노려보며 식식대고 있었다.하지만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기에는 나기는 물끄러미 여와를 보며 생각했다.하지만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기에는 아무래도 옳은 판단이 아닌 것 같다.특히 여와가 소백을 마음에 두고 있는 실정에서는 더더욱 말이다.소백... 청아가 천천히 입을 떼었다. 그 소리를 듣고 나기가 품에 안은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혜류경을 꽉 채운 무수한 별들,사방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는 청아의 속눈썹은 가지런했다.청아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소백의 별에 불이 붙었네.”하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녀도 잘 모르는 듯 했다.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유 리’와 ‘유 탁’은 쌍둥이 남매이다.나이는 19세이고, 다섯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예쁘장한 생김새 덕에 입양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많았다.많았으나 둘이 같이가 아니면 절대 다른 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특히 생김새와 달리 의외로 성격이 거친 탁이가 고집을 부리는 통에 둘은 여태 고아원 신세였다.탁이는 한 번 마음 먹은 일은 절대 굽히지 않는 성격이었고, 리는 뭐든 탁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었다.둘은 피부가 하얗고 갸름하고 조그만 얼굴에 긴 속눈썹에는 성냥개비가 3개나 올라갔다.크고 새카만 눈동자에 머리 색깔도 아주 새카맸다.처진 눈꼬리에 늘 하고 다니는 표정 없는 얼굴,생김새만 보자면 머리카락 길이와 키만 빼고는 둘은 너무나도 닮아있었는데,특기라고 할 수 있는 손발이 빠르다는 점도 똑같았다.그랬다.둘은 손발이 빨라 같이 호흡을 맞추면 죽이 척척 맞았다.둘의 취미는 소매치기였다.아침의 지하철 9호선은 혼잡하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늘 이런 모양이었다.오늘도 리는 국회의사당역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기다렸다.역시나 모두 다 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만큼의 사람 수가 줄을 서 있었다.리는 그 줄의 끝에 가 섰다.맨 끝자리지만 딱히 못 탈까 봐 걱정하는 눈치는 아니었다.눈썹 위로 반듯하게 자른 뱅 스타일의 앞머리, 허리에 닿는 긴 머리카락, 여름 교복,줄여서 무릎이 보이는 치마 아래로 가느다란 다리, 하얀색 스니커즈,리는 보통 고등학생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책가방이 없다는 점이었다.이곳은 사람 냄새가 심하다.이렇게 생각하며 리는 저편에서 다가오는 지하철을 힐끔 쳐다보았다.지하철이 서고, 지하철 문이 열리고, 서로를 밀치다시피 다들 안으로 들어갔다.형식상의 줄이 무너지고, 리도 누군가를 쫓듯이 무리에 끼어들어 따라 들어갔다.목표물은 이미 결정해두었다.이런 일은 많이 해봐서 안다.누구를 털어야 가장 안전하고 실속이 있는지, 딱 보면 감이 온다.오늘은 오른쪽 옆에 선 이 남자이다.잠이 덜 깼는지 지하철을 타자마자 팔짱을 끼고 눈을 딱 감았다.귀에 꽂은 이어폰, 남자는 보스턴 가방을 메고 있었다.긴 끈을 어깨 한쪽에 걸어 축 늘어뜨렸다.지퍼를 잠그다 말아 입구 절반이 열려있었다.참 조심성 없네. 리는 고개는 돌리지 않고 눈동자만 내리떠 가방을 쳐다보았다.가방 옆면에 붙은 똑딱이 식 보조 주머니, 지갑은 그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사람, 사람, 사람, 서로의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다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었다.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이곳 에어컨은 매우 세다.다음 역에 탁이가 기다리고 있기에 빨리 해치우고 다음 역에서 내려야 했다.슬슬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왼편에 있는 여자 하나가 표정이 무지 좋지 않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뭐라 말은 하고 싶은데 뭐라 말은 못 하는 얼굴이었다.징그러워. 리는 여자 뒤에 선 아저씨를 흘겨보았다.지하철 안은 서로 서로가 거의 붙어있다시피 해서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난감한 상황이었다.아저씨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했다.여자 뒤에 서서 자기 아랫도리를 슬쩍슬쩍 여자한테 비비듯이 갖다 대고 있었다.씰룩, 씰룩, 움찔, 움찔,입꼬리를 움직이는 아저씨는 대머리에다가 흘러내리는 살들이 거뭇거뭇했다.그 꼴을 보고 있자니, 토가 쏠려 리는 자기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했다.그러고 있는데 아저씨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이 보였다.뒷주머니에 지갑이라니 하는 짓도 비겁한데 머리까지 나쁘네.목표물 변경.리는 아저씨를 털기로 계획을 바꿨다.곧 여의도역이었다.거기서 리는 내려야 했다.지하철 문이 열리자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움직였다.출입구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 기를 쓰며 전진했고 틈과 틈 사이로 너도나도 끼어들었다.리도 자연스럽게 그 틈에 끼어들어 갔다.자그만 몸을 틀어 아저씨 뒤로 스치듯 지나가며 재빠르게 지하철 안을 빠져나왔다.빠져나왔을 때는 아저씨의 지갑이 리의 손에는 들려있었다.보니, 지갑은 좀 낡았지만 고루한 아저씨답게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인지, 현금이 꽤 있었다.씩 하고 입꼬리를 올리며 리는 오늘 시작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어쩐지 즐거운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리는 탁이와 만나기로 한 출구 방향을 찾았다.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누군가 리의 손목을 낚아채고는 놓아주질 않았다.“쥐새끼 같은 년.”그 변태 아저씨였다.지갑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아랫도리나 즐길 멍청한 변태일 줄 알았더니 이렇게 눈치가 빠른 예민한 생물일 줄이야.예상 밖의 일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을 빠져나오자마자 냅다 튀는 것이었는데.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전력 질주밖에 방법이 없었다.치. 리는 무릎을 꺾어 가차 없이 아저씨의 아랫도리를 찍었다.헉! 아저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가랑이 사이를 모으고는 두 손으로 그곳을 감쌌다.잡혔던 손목이 풀렸고, 리는 탁이가 기다리고 있는 출구 쪽으로 몸을 틀어 달리기 시작했다.거기서! 아저씨가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리는 손발이 빠르다.인파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막힘 없이 달리는 리의 다리는 길고 늘씬했다.계단을 두 개씩 올라가고 휙휙 방향을 꺾어대는 시원스러운 동작, 가는 허벅지, 펄럭이는 교복 치마, 검고 긴 머리카락이 휘날렸다.아저씨는 끈질기게도 끝까지 쫓아올 작정이었다.내 지갑! 누가 저 도둑년 좀 잡아!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마침 근처에 있던 청년이 그 소리를 들었다.청년은 리를 잡으려고 저 앞에서 두 다리와 두 팔을 쫙 벌리고는 가로막고 있었다.청년 뒤로 개찰구가 보였다. 고개를 비틀어 뒤를 돌아보았다. 아저씨 말고도 남자 하나가 또 쫓아오고 있었다.리는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그대로 슬라이딩했다.청년의 두 다리 사이를 지나고, 이어서 개찰구를 밑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한 번에 해결했다.어라? 청년이 얼빠진 얼굴로 뒤를 보았다.저만치 달아나는 리의 뒷모습,그 모습을 넋 놓고 보고 있다가 달려오던 아저씨와 또 다른 남자에게 밀쳐져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다.“소매치기! 소매치기 잡아라!”마지막 계단이었다.리는 그 긴 다리로 계단을 껑충껑충 올라갔다.다 올라와 밖으로 나오자 거기에는 탁이가 있었다.계단 바로 옆 난간은 널찍한 대리석이었고, 탁이는 그 위에 개구리가 앉은 자세 모양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다.탁이를 지나쳐가며 리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은 채 지갑을 뒤로 휙 던졌고,탁이는 공중에서 지갑을 낚아챘다.그러고는 풀쩍 난간에서 뛰어내려 계단을 등지고 섰다.아침인데도 무척 무더운 날씨였다.두툼한 구름, 얼룩무늬 하늘,저기에 있는 한강은 조용하고 물 색깔이 오늘따라 유난히 짙다.“저쪽이다!”계단을 다 올라온 남자 둘이 밖으로 튀어나와 리를 쫓아갔다.대머리와 야구모자를 쓴 남자였다.뒤돌아선 탁이는 팔짱을 낀 채 저 멀리 뛰어가는 세 사람을 곁눈질로 쳐다보았다.리한테서 건네받은 지갑은 교복 바지 주머니에 넣고 기대었던 난간에서 등을 떼었다.떼고는, 리, 대머리, 야구모자, 세 사람을 뒤따라 뛰기 시작했다.너무 가깝지 않도록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 조절을 하면서, 리의 뒤를 따라갔다.리가 그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하면 문제없겠지만 여차해서 잡히기라도 하면 탁이가 나서야 하기 때문이었다.만일을 대비한 미행이라고나 할까?탁이와 리는 손발이 빠르다. 취미는 소매치기,둘이 힘을 합하면 죽이 척척 맞아 이런 일쯤이야 별거 아니다.끈질기네. 저 아저씨들은 다 늙어빠졌는데 체력이 참 좋다.이렇게 생각하며 리는 계속해서 달렸다.운이 좋아 기다림 없이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고, 직진하다가 홱 하고 몸을 틀었다.빵집을 끼고 골목으로 들어서자,골목은 사람 하나 없었는데 가게들이 쭉 있었고 아침이라 아직 장사 전인 가게들이 태반이었다.전날 내놓은 쓰레기봉투, 노란 줄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 리를 빤히 보더니 가로질러 갔다.헉헉. 리는 잠깐 멈추고 숨을 골랐다.아무래도 이대로 도망만 치기에는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다.일자로 쭉 뻗은 골목, 밖으로 나가는 골목 끝 저편으로 파란 트럭이 하나 지나갔다.일단 저기까지 달려 골목을 빠져나갈까 다시 달릴 자세를 잡는데,쫓기나 보지? 바로 옆에서 그렇게 묻는 남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그는 검지와 중지 사이에 담배를 끼고 있었다.리가 쳐다보자, 남자는 내리뜬 시선을 리에게서 떼지 않은 채 턱만 살짝 옆으로 돌려 훅하고 담배 연기를 뿜었다.여기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던 모양인데,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다.리가 고개를 쳐들어야 남자의 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남자는 키가 무척 컸다.창백할 정도로 얼굴이 하얗고 서글서글한 눈매에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했는데 미소년이기는 하나, 하고 있는 차림새가 요즘 사람이 아니었다.까맣고 긴 머리카락은 길게 땋아 댕기를 했고 입고 있는 옷은 한복이었다.이것은 도령의 모습이었다.촬영하나? 여기 어디에서 사극이라도 찍나 리는 생각했다.두리번두리번 주위를 둘러보는데, 도와줄까? 도령이 허리를 굽혀 얼굴을 불쑥 들이밀었다.도령이 씩 웃었다.순간 턱을 당겼지만 그래도 코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얼굴이 가까이 있어 리는 얼굴이 확 빨개지고 만다.거리가 무척이나 가까웠다.검었던 도령의 눈동자, 순간 잠깐이었지만 도령의 눈동자가 푸른색으로 바뀌어 보였던 것은 착각이었을 까?“골목이야! 골목으로 들어갔어!”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리는 도령한테서 떨어져 다시 달릴 태세를 했다.발을 떼려고 하는데 도령이 리의 손목을 잡고 홱 끌어당겼다.품 안에 리를 안고는 뒤로 돌더니 가게와 가게의 경계선이 되는,담장과 담장 사이의 틈으로 슥 들어갔다.분명 사람 하나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좁은 틈이었다.그런데 도령이 리를 품에 안고 뒤돌아 바로 들어가는 순간,틈새는 물방울이 모양을 바꾸듯 유연하게 늘어났고,두 사람이 들어오자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리는 너무 놀라 이상한 소리를 낼 뻔했다.쉿! 도령이 리를 끌어안은 채 검지를 리의 입에 갖다 대었다.리는 숨을 삼켰다.아닌가? 원래 그렇게 좁지 않았었나? 이렇게 속으로 긴가민가할 수밖에 없었다.사방은 캄캄했고, 리는 그저 도령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좁은지 넓은지조차 알 수 없었다.도령의 어깨너머, 기다랗고 네모난 좁은 틈새,타다닥하는 발소리가 들리고 대머리 아저씨와 야구모자를 쓴 남자가 딱 틈새만큼 보였다.보였는데, 보이는 그림이 평범하지가 않은 것이 마치 일렁이는 수면을 통해 보는 기분이었다.또 그러네. 리는 이것도 환상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려니 해버린다.도령의 가는 목덜미, 숨결, 이 남자의 체온은 놀라울 정도로 차다.“젠장! 어디 갔지?”“벌써 저쪽으로 빠져나갔나 본데요?”“하아- 무슨 계집애가 발이 그렇게 빨라?”“어? 쟤 아니에요?”“야! 너! 거기서!”누구를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살았다. 리는 안도했고,눈 한 번 깜빡 감았다 떴을 뿐인데 리와 도령은 틈새 밖으로 나와 있었다.여전히 도령이 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리는 화들짝 놀라 그에게 떨어져 나왔다.“고맙습니다.”구해줬으니 어쨌든 고맙다는 인사는 했다.도령은 대답 없이 그저 실실 웃기만 했다.그 묘한 미소가 약간 찜찜했으나,신세를 진 사람한테 무례한 태도는 보일 수 없으니 리도 억지로 생긋 웃어 보였다.슬쩍 곁눈질로 아까 그 틈새를 보았다.보았는데 역시 저 정도 너비로는 절대 몸을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위험한 데? 아무래도 잘 못 걸린 기분이다.촬영은 아닌 것 같았다.꼴을 보니 시대에 맞지 않은 도령 코스프레에다가 저 실실 웃어대는 얼굴은 어째 무섭기까지 했다.“그럼 전 이만 가 볼게요.”빨리 이 사람한테서 떨어지자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아저씨를 따돌리는 데 성공하면 탁이와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다.한강 둔치 편의점, 우리가 늘 만나는 장소는 거기였다.골목을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꺾어, 바로 직진, 왼편 횡단보도를 건너고,여기까지는 평소처럼 걷다가 다음은 다다닥 뛰기 시작했다.그런 식으로 쭉 직진을 하다가 홱 하고 왼쪽으로 꺾어,타다다닥 계단을 내려갔다.한강이 보였고 이제 편의점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기만 하면 된다.그런데 리가 방향을 틀다 말고 갑자기 뛰기를 멈추고 뒤로 돌아섰다.리가 말했다.“왜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아까 그 도령이 뒤에 서 있었다.도령은 계속 따라왔지만, 리가 모르는 척하기에 언제까지 무시를 하나 두고 보면서 끝까지 쫓아온 것이다.이제야 반응을 보여주니 반가운지 도령이 씩 웃어 보였다.“도와줘서 감사한 데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리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푹 쉬었다.“신세를 졌으면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나?”“좋아요. 대체 내게 뭘 원하시는데요?”그렇다. 정신 나간 놈한테 잘 못 걸린 것이다.이렇게 생각한 리는 괜히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기 싫고, 또 귀찮으니까 빨리 해결을 보기로 했다.무엇을 원하냐는 질문에 도령은 환하게 웃더니 리에게 바짝 다가왔다.또 불쑥 얼굴을 들이밀기에 주춤 뒤로 물러서려고 했더니, 물러서지 못하게 리의 허리를 감싸고 끌어당겼다.“찾았다. 내 신부. 나와 함께 가줘야겠어.”이런 진짜 미친놈을 봤나!리는 도령의 가슴팍을 확 밀쳤다.“내가 왜 그래야 돼요?”아니 무슨 목숨을 구해준 것도 아닌데 이런 얼토당토않는 요구라니 리는 너무 황당했다.상대하지 말자. 여기서 더 얽히지 말자고 생각했다.리는 다시 뒤돌아 가던 길을 마저 걷기 시작했다.그런 리를 도령은 졸졸 쫓아갔다.리는 빨리빨리 걸었다.도령은 보기에는 설렁설렁 느리게 걷는 모양이었지만,둘 사이의 거리는 성인 보폭 두 걸음 차이였다.거기서 더 벌어지지도 좁아지지도 않았다.“같이 가지?”“싫으니까 따라오지 마세요.”“나도 싫은데? 난 너로 정했거든.”“경고하는데 자꾸 따라오면 신고할 거예요.”“신고? 날? 하하. 글쎄 그럴 수 있을까? 신고하면 발각될 텐데. 이거, 아까 그 대머리한테서 훔친 거지?”이거, 훔친 거지? 라고 말하는 소리에 뜨끔해서 리는 걸음을 멈추었다.지갑은 분명 탁이한테 건냈다.게다가 도령하고는 방금 만났고 소매치기한 짓을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지?‘이거’ 라니 설마 도령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홱 뒤돌아 도령의 손부터 확인했다.그런 리의 생각을 눈치챘는지 도령이 두 손바닥을 들어 쫙 펴서 보여 줬는데 지갑은 없었다.날 놀렸어! 리가 도령을 째려보았다.보았으나 도령은 째려보든 말든 싱글싱글 웃기만 했다.그래도 그렇지 처음부터 지켜보지 않고서야 리가 무언가를 훔쳤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그것은 미스터리였다.“아저씨 뭐예요?”“글쎄 뭘까?”낭군? 도령은 고개를 갸웃하고 씩 웃었다.“그리고 아저씨라니 이 차림새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말하며 도령은 두 팔을 벌려 보였다.그가 이어 말하기를,이 나라는 결혼하지 않은 총각은 다들 이렇게 하고 다닌다기에 일부러 이렇게 모습을 바꾸었다고 했다.“아, 그래요?”바보인가? 생각하며 가늘게 눈을 뜨고 리는 슬슬 뒷걸음질을 쳤다.“날씨 참 좋군. 혼인하기에 딱 좋은 날씨야.”도령이 뒷짐을 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따끈한 햇살, 한강, 불어오는 바람에서 물 냄새가 났다.그는 한껏 숨을 들이켜더니 기분이 좋은지 배시시 웃었다.바보 맞네. 리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다.그리고 이 사람...난 너희들 살인 병기 따위가 아니야이 사람, 이상하다.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리는 확신했다.아까 그 틈새도 그렇고, 소매치기를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생김새가 그렇다.방금만 해도 머리카락, 눈동자, 둘 다 색깔이 까맸다. 까맸는데 지금은 달랐다.은발의 머리카락, 푸른색 눈동자,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지?“내가 두렵나?”“ 싫어...”“싫다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넌 내 여자다.”라고 말하는 소백의 얼굴에 웃음기가 삭 사라졌다.한 번 마음 먹은 일에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그다운 표정이었다.어느새 그는 인간 도령의 모습에서 본래 신족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매끄러운 은발은 길이가 허리선을 넘었는데, 그 긴 머리카락을 높이 묶어 포니테일했으며 푸른색 눈동자에는 찬 기가 가득했다.갸름한 턱선, 맑고 흰 피부, 고요한 눈빛,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려한 용모였다.우르르 쾅!청명했던 하늘에 번개가 치더니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었다.두툼하고 거대한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더니 장대비가 좍좍 쏟아지기 시작했다.비가 내리는 소리에 이 세상 소리란 소리는 다 묻혀버렸다.리는 귀가 먹먹해지는 기분이었다.얼굴, 머리카락, 옷이며 신발이며 리뿐만 아니라 온 주위가 비에 젖어버렸다.그러나 소백은 전혀 젖지 않고 그대로였다.얇고 푸른빛의 선이 그의 몸체를 따라 흐르듯 감싸고 있었다.그는 공중에 떠 있었다.도망가야 해!여기서 도망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도망이었다.탁이가 기다린다.소백에게서 등을 돌리고 발을 떼려는데,그 셀 수 없이 수많은 빗줄기가 리에게 달려들었다.가늘고 유연하고 팽팽한 그것들은 마치 밧줄인 양 리의 몸을 꽁꽁 묶어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했다.이거 놔!리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빗줄기는 더 옭아매었다.그리고 그녀를 공중으로 붕 띄었다.찬 비, 비는 너무나도 차가웠고 리의 체온을 떨어뜨렸다.여름인데도 숨을 쉴 적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다.“그러니까 싫다고 하지 말았어야지.”서운해서 울 뻔했잖아.눈앞에 소백이 있었다.물에 젖은 리의 새까맣고 긴 머리카락,흘러내린 그것을 소백이 귀 뒤로 넘겨주어 얼굴이 드러나게 했다.그리고 턱을 살짝 잡고 고개를 들게 했다.“춥지? 미안. 잠깐이면 돼.”이렇게 말하는 표정이 정말 미안하다는 얼굴이었다.리는, 귀는 꽉 막힌 듯 먹먹했고 머리가 지끈거렸다.모든 소리는 머릿속에서 공명했다.빗소리, 소백의 목소리, 리한테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것뿐이었다.“유리!”그리고 ‘유 탁’의 목소리였다.탁이는 ‘유 리’를 ‘리’라고 부르지 않고 꼭 ‘유리’라고 성까지 붙여서 부르는 버릇이 있다.탁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났다.발 아래를 보니 정말로 탁이가 여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우리가 보인단 말인가? 그렇게 소백이 혼잣말을 했다.“탁아! 도망가!”리가 소리쳤다.“웃기지 마!”라고 탁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너를 두고 도망치라니 당치도 않다는 의미였다.탁이는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다.리를 미행하다가 중간에 사라져서 어디로 갔나 걱정했고,조금 길을 헤매다가 그래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있어서 와봤더니,유리는 왜 그런 데에 붕 떠 있는 건지,그리고 저 기생오라비 같은 자식은 왜 데리고 있는 건지,어느 것 하나라도 정상인 게 없었다.공중이라니 이거 진짜야?방사선 형태로 좍좍 내리는 빗줄기,눈에 들어가든 말든 탁이는 절대 눈을 깜빡이거나 하지 않았다.“뭐. 상관없어.”저 녀석은 여기서 뒈지든지 말든지.그렇게 말하며 탁이를 냉정하게 쳐다보는 소백의 속눈썹은 길고 가지런했다.그는 아래에 있는 탁이한테서 시선을 거두더니,난 너만 있으면 되거든,이렇게 말하며 입매를 한껏 끌어올렸다.그가 엄지와 중지를 부딪쳐 딱 하고 소리를 냈다.딱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화산이 폭발하듯 한강이 용솟음쳤다.우렁찬 굉음, 장대비, 거센 바람이 불었다.리는 물에 젖은 긴 머리카락이 뺨에 들러붙고 바람 너무 세서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겨우 실눈을 뜨고 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쪽을 보는 소백은 매우 평온한 얼굴이었다.딱 하고 그가 다시 엄지와 중지를 튕겼다.그 거대하고 굵은 물기둥이 높이 치솟더니 살아있는 생물인 양 움직였다.공중에서 호를 그리며 휘더니 맹렬한 기세로 이쪽으로 달려들었다.위에는 리와 소백이, 그 아래에는 탁이가,물기둥은 그들이 있는 지점에서 폭포수가 되어 땅을 향해 내리꽂았다.솨아아, 희고 두툼한 물거품이 일었다.물속.물속에서 리는 빗줄기의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로웠다.자유로웠지만 문제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숨이 막혔다.죽을 것 같았지만 죽을힘을 다해 눈을 떴다.온통 초록빛 물이었고 위를 보아도 수면이 아니었다.마치 심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다.살려줘! 더는 숨을 참기가 한계라 눈을 질끈 감았다.꾹 다물고 있던 입에 힘을 빼는 순간,그때 누군가가 리의 턱을 잡고 입술에 입술을 대었다.대더니 살짝 벌리게 하고는 숨을 불어넣었다.숨이 쉬어졌다.리는 번쩍 눈을 떴다.뽀르륵 동그라미 모양의 공기 방울들,소백이었다.“천천히 쉬어 봐.”몰속인데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말하면서 부드럽게 미소 짓는 얼굴도 선명하게 보였다.숨,서서히 오르내리는 리의 자그마한 가슴팍,이 남자는 정말이지 눈동자 색깔이 파랗고 진한 물색이다.소백의 미소는 멋졌고 목숨은 건졌지만,리는 이러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주위를 두리번두리번거리며 탁이를 찾았다.탁이도 분명 같이 끌려 들어왔을 테니 여기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저 아래 탁이가 있었다.탁이는 숨이 막히는지 무척 괴로운 얼굴이었는데,괴로워하면서도 리를 발견하고 기를 쓰며 헤엄을 치고 있었다.이를 악물고 중간 정도 올라왔으나 숨이 다 했는지 헤엄을 멈추고 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온몸에 힘이 빠진 모양인지 가라앉는 탁이의 뒤는 깊은 어둠이었다.탁아!탁이에게 가려는 리를 소백이 손목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리는 반항을 했다.소백의 팔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하지만 충격을 주기는커녕 물속에서는 죄다 소용없는 짓이었다.탁이가 죽는다고요!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손목을 쥐고 있는 소백의 손등을 깨물었다.윽,조금 아픈지 소백이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렇다고 손목을 쥐고 있는 손가락에 힘을 빼지는 않았다.그는 리를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그는 한숨을 푹 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성가시군.탁이를 흘겨보더니 후- 하고 길게 입바람을 불었다.보글보글 작은 공기 방울들이 생겼고,올망졸망 모이더니 기다랗게 줄을 지었다.그리고는 탁이를 향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다.공기 방울들은 탁이의 입속으로 들어갔다.그것을 먹고 숨을 쉴 수 있게 된 탁이가 눈을 떴다.뜨자마자 탁이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헤엄을 쳤다.소백을 노려보는 새카만 눈동자가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눈빛이었다.소백이 입은 도포는 희고 물결에 나부꼈다.거의 다 올라오자 탁이는 급한 마음에 긴 팔을 쭉 뻗었다.도포의 끝자락을 덥석, 사납게 잡아당겼다.“끝까지 내게 덤비겠다는 건가? 지독한 놈이군. 아니면 머리가 나쁘거나.”배짱 하나는 인정하지.소백은 탁이한테서 시선을 떼더니 리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그가 팔을 휘둘러 휙 하고 아래로 사선을 긋자,칼날 형태의 물보라가 일었고,파동이 일면서 탁이를 저만치 밀어냈다.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탁이는 다시 아래로 꺼지는 신세가 되고 만다.리가 발버둥을 쳤지만 물론 헛수고였다.“걱정 마. 목숨은 붙었으니.”소백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그의 발밑을 중심으로 소용돌이가 치솟았다.이번에는 소용돌이였다.세 사람을 가둔 물기둥은 소용돌이가 되어 몸체를 비비꼬았다.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저 물살에 휩쓸려 뱅글뱅글 돌았다.정신 바짝 차려야 해.아까는 소백한테서 떨어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소백의 팔을 꽉 붙들었다.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눈을 질끈 감고 버티는 리는 마치 돌풍에 휘날리는 종이 인형 같았다.교복 치마가 뒤집히고 상의 단추가 떨어져 나가 윗부분이 벌어지고 말았다.가느다란 목덜미, 툭 튀어나온 쇄골,왼쪽 쇄골 아래 심장이 있는 위치에 붉은 반점이 드러났다.초승달 모양이었다.‘이것은!’초승달 모양의 붉은 반점.그것을 본 소백의 눈이 커다래졌다.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점이었다.환상국, 신족, 인간족, 요괴족, 각과 적귀,선대의 선대에 이어 내려온 예언을 이런 식으로 맞닥뜨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각이다!적귀를 차지할 수 있는 열쇠가 이렇게 연약한 여자애라니,이렇게 쉽게 발견하다니,소백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씨익 한껏 입꼬리를 올렸다.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는데,아래에서 무언가가 불쑥 올라오더니 리와 소백의 사이를 가로막았다.탁이었다.탁은 매서운 눈빛으로 소백을 노려보았다.노려보았는데, 겉보기에는 소백처럼 소용돌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그는 소용돌이의 거센 물살에 기를 쓰고 반항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잇새 사이로 거친 숨결이,꽉 쥔 주먹에는 힘줄이 불거졌고,꼿꼿하게 선 몸체,교복 상의는 단추가 다 풀려 옷자락이 심하게 나부꼈다.쇄골뼈, 가슴팍, 희고 호리호리한 상체가 드러났다.소백은 거기서 똑같은 붉은 반점을 보았다.리와 똑같은 위치의 똑같은 모양의 초승달 붉은 반점이었다.‘어째서?!’소백은 당황했다.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의 영력이 흐트러지고 말았다.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소용돌이 조종에 실패하고 말았다.주인을 잃은 소용돌이는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혼돈.이세계와 이세계를 잇는 통로가 뒤틀리고,소용돌이의 모양도 움직임의 흐름도 뒤죽박죽이 되었다.갈피를 잃은 소용돌이,일정하던 물살의 방향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다.리, 탁, 소백은 각자 흩어지고 말았다.리는 저쪽으로, 탁이는 이쪽으로,홀로 중심을 겨우 잡은 소백은 급한 대로 영력을 거두었다.쉬이익-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듯 소용돌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그리고 그들도 모두 제각기 사라졌다.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여기는 한강 둔치.계절은 여름이고 오늘 날씨는 이른 오전인데도 살짝 더우며 하늘은 무척 맑다.회색, 백색, 비둘기가 마른 땅을 가로지르고 한강에 자잘한 물결이 일었다.희고 두툼한 구름이,자유롭고 조용하게 흘러갔다.햇살의 온기는 노란 기가 도는 주홍색이다.그런 것은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다.눈을 감으면 어둡고,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반짝반짝 빛난다.리의 감은 눈꺼풀, 가지런한 속눈썹, 참 따끈하다.이런 생각을 하며, 잠에서 깬 리는 좀처럼 일어날 의지가 없다.꿈.이상한 꿈을 꾸었다.이상하고 슬픈 꿈을.이상한 힘을 가진 남자, 이상한 비, 이상한 물속,그리고 심연으로 가라앉는 탁이의 눈동자는 불쌍할 정도로 처참했다.이 모든 것들이 죄다 생생해서는 꿈의 잔 여운이 남아 아직도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물속이라 숨이 갑갑했었는데 그 이상한 남자가 입을 맞추자...입술이...에잇! 그만 생각하고 일어나자!등에 닿는 푹신푹신한 감촉,나른한 고양이 마냥 뒹굴, 몸을 뒤집었다.상쾌한 아침, 리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어?”여긴 내 방이 아니잖아.숲.껍질이 하얗고 쭉쭉 뻗은 나무,가지와 줄기가 늘씬늘씬한 나무들에게 빙 둘러싸인 동그란 대지,그곳에 리는 혼자였다.위를 보니 하늘이었다.동그라미 모양 하늘,흰 구름이 많아 하늘색의 분량이 적었고,침대라고 생각했던 감촉은 부드러운 모래였다.하얗고 고운 모래밭에 하얀 나무라니,어디선가 두 발인지 네 발인지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바람 한 점 없는데 나뭇가지에서 이파리가 살랑살랑 꽃비처럼 날렸다.깃털 모양의, 보송보송하고 보라색이고 난생처음 보는 식물이었다.꿈이 아니야!입고 있는 옷을 보니 교복이었다.물살에 휩쓸려 상의 윗부분 단추가 풀어져 있었고 덜 마른 상태였지만 살짝 덜 마른 정도였다.진짜네. 나, 얼마나 정신을 잃었던 걸까?“탁이!”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탁이도 같은 처지일 터였다.열아홉 평생 살면서 사차원 세계는 늘 상상했지만 진짜로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환상을 보는, 이상한 경험은 툭 하면 해댔지만 진짜로 이상한 세계를 볼 줄은 몰랐다.그런데 이렇게 막상 겪게 되니 리는 무서웠다.게다가 탁이 없이 혼자라니,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다.탁이는 어디로 떨어진 걸까? 이 세계에 있기는 있는 걸까?리는 탁이를 소리쳐 불렀다.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조용하다.불쑥, 저쪽 나뭇가지에서 날짐승 한 마리가 푸드득 하고 날았다.쉬익-일부러 겁이라도 주려는 듯 리의 머리 위를 스쳐지나 반대쪽 나뭇가지로 가로질렀다.“꺄악!”날개를 접고 나뭇가지에 앉은 날짐승을 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보았다.아몬드 모양 눈이 온통 파랑이고 노랑 부리가 길고 뾰족하고 깃털이 죄다 새카만 새였다.끼루룩, 이런 소리를 내면서 새가 고개를 홱 옆으로 꺾었는데,어떻게 생겨 먹은 모가지인지 꺾은 목을 360도 회전했다.끼루루루루우욱?!“꺄아아아악!”그 모습이 너무나도 징그러웠다.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달리면서 엉엉 울었다.사차원 세계 같은 거, 현실에서나 낭만이었지 이렇게 외롭고 죄다 괴상하고 끔찍한 것들뿐이라면 지옥이나 다름없다.공포다. 절대! 절대 사절이다.빽빽하고 흰 나무들, 울퉁불퉁하고 크고 작은 돌부리,땅이 모래밭이라 발이 푹푹 들어갔지만,발이 빠른 리는 잘도 달렸다.평소 소매치기로 단련이 되어있기 때문이다.눈물이 앞을 가렸다.앞을 가려 보이는 사물은 모두 윤곽이 뭉개지고 형체가 희미했다.팔뚝으로 눈물을 슥슥 닦아내어도 눈물은 자꾸만 흘렀다.그래도 리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앞으로, 앞으로, 그러다 돌부리 하나에 발이 걸리고 말았는데,삐끗 넘어지면서 산비탈로 데굴데굴 굴렀다.“아야야.”땅은 모래가 고와서 충격이 덜했지만 구르면서 돌부리에 여기저기 부딪힌 모양이었다.온몸이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다.상체만 일으켜 그대로 주저앉은 채 리는 멍하니 정면을 응시했다.눈물범벅인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모래가 잔뜩 묻은 데다가 무릎은 까져서 피도 났다.“아파...”훌쩍훌쩍, 눈물을 닦으며 리는 탁이를 또 생각했다.이런 꼴을 탁이가 본다면,야! 일어나, 라고 말할 테다.말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툭 내뱉으면서 동시에 리의 손을 덥석 잡고 잉차, 끌어당겨 줄 테다.그런 탁이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다.리는 탁이를 찾기로 결심한다.탁이가 이 세계에 있다면 이 세계 세상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찾으면 될 일이고,원래 살던 세계에 있다면 이 세계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원래 세계로 돌아가면 될 일이었다.온 구멍이 있으면 갈 구멍도 있겠지. 여기서 이러고 징징거릴 때가 아니야.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여기저기 묻은 모래를 탈탈 털고, 풀린 단추를 채우고,손가락으로 머리카락도 슥슥 빗었다.그때 찰박찰박 물소리가 들렸다.또 이상한 생물을 보게 될까 봐 무서웠다.하지만 그래도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지도 몰랐다.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소리가 난 쪽으로 가 보니, 그곳에는 바위들이 솟아있었다.죄다 크기가 크고 널찍해서 사람 하나는 충분히 몸을 숨기고도 남을 크기였다.그곳에 개울이 있었다.리는 바위 하나를 골라 뒤에 숨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딱딱하고 차가운 바위, 개울에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다.수면이 그 사람 허벅지까지 와서 리는 개울이 그리 깊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그 사람은 상체는 맨살이었지만 허리춤에 무언가를 걸쳐 가리고 있었는데,상처를 입었는지 그 사람한테서 핏물이 흘러나왔다.투명한 물, 물결치는 빛, 핏물은 물에 씻겨 핏빛이 점차 사라졌다.꽤 심하게 다친 모양이었다.자세히 보니 등, 허벅지, 보이는 데 족족 부상의 흔적이 있었다.목욕하는 사람 훔쳐보는 악취미 같은 거, 없는데 어째 이렇게 됐다.조금 난감한 기분으로 리는 바위 뒤에 숨어 얼굴만 쏙 내민 채 저편의 사람을 보았다.보이는 게 뒷모습 삼 분의 이가 다이지만 대충 여자 같았다.새카맣게 흐르는 긴 머리카락이며, 늘씬한 팔이며, 가는 목에 허리도 잘록하다.전체적으로 선이 가늘고 언뜻언뜻 옆얼굴도 봤는데 희고 갸름하니 여자다.저런 여자가 어쩌다 다쳐서 이런 곳에서 몸을 씻는 것인지,사연이 있는 여자 같으나 위험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리는 판단했다.도와달라고 하자.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좋은 사람일 거라 믿기로 하고 리는 바위 뒤에서 나가려고 했다.쭈그렸던 다리를 펴려는데 개울가에 남자 둘이 나타났다.“보기 좋은데? 오늘은 재수가 좋아. 안 그래?”“그러게 여기서 월흔 고기 맛을 맛보게 될 줄이야.”그렇게 말하면서 남자 둘은 입맛을 다셨다.“인간 고기가 질리던 참이었는데 잘 됐군.”두 남자는 인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귀가 뾰족하고 빨간 눈동자에 눈 밑의 피부는 표면이 자잘한 비늘이었다.짓는 표정도 음산하니,입맛을 다실 때 날름거렸던 혀도 두 갈래로 갈라진 시퍼런 색이었다.저게 뭐야!리는 모습을 드러내려다 말고 다시 바위 뒤에 숨어버렸다.아무래도 요괴 뭐 그런 생물 같은데 저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짐작을 했다.어떡하지?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재주라고는 훔치기와 도망치기 뿐이라 그거라면 자신 있는데,요괴를 물리치는 능력 같은 것은 없었다.이럴 줄 알았으면 탁이한테 싸우는 기술이라도 배워둘 걸 그랬다.탁이는 싸움을 참 잘한다.배운 적도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시비가 잘 붙어서 그런지 워낙 단련이 돼서 몸을 잘 쓴다.무섭다. 너무너무 무서워 미치겠다.그렇지만 리는 저 여자가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었다.용기를 내어 또다시 고개만 쏙 내밀고 사태를 보았다.요괴 둘은 여자와 거리를 점점 좁히고 있었다.흐흐흐, 시퍼런 두 갈래 혀,먹을 생각에 흥분이 되는지 눈 밑의 비늘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리는 마음이 급해졌다.휙 시선을 돌리니 개울가 근처 평평한 바위 하나가 있었다.그 위에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소지품이 있었다.벗어 놓은 옷가지와 신발이었는데,그것들에도 피가 잔뜩 묻어 있는 데다가 찢어져서 있으나 마나 한 것이었다.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장검이 하나 있었다.저거다! 장검을 발견하고 리는 주저 없이 일어났다.이런 데서 이렇게 긴 칼을 휘두르게 될 줄이야.칼자루는 묵직하니 검고,칼자루에서 검을 뽑아 드니 쇠의 찬 기운이 번쩍했다.무거웠지만 생각보단 가벼운 장검이었다.후우웁! 크게 심호흡을 하고, 이야야아아! 돌진했다.“저리가아아아아!”요괴를 상대로 싸우겠다니 나는 아마도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어쩌면 물살에 휘말려 머리 어딘가를 심하게 부딪쳐 고장이 난 것일지도.제발 알아서 꺼져줘라.이런 심정으로 리는 검을 마구 휘둘렀다.휙! 휙! 휘두르며 개울 가운데로 전진했다.찰박찰박,개울에 몸을 담갔더니 여자의 허벅지께까지 왔던 수면은 거의 리의 명치까지 왔다.막무가내로 덤벼드는 검 끝을 피해 요괴 둘은 우왕좌왕했다.둘 다 검을 피해 각자 반대편으로 몸을 틀었고,리는 계속 검을 휘두르며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여자는 지금 많이 다친 상태이니,아무리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요괴들을 절대 상대할 수 없을 터였다.리는 홱 뒤돌아 여자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섰다.“더, 덤벼!”칼자루를 쥔 손이 벌벌 떨리는 주제에 이럴 때일수록 인상 팍 쓰고! 눈 만큼은 부릅뜨고! 팍 노려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요괴의 생김새는 훨씬 더 끔찍했다.어떡해 난 몰라아아-“뭐야 이건? 겁대가리 없이.”“인간인가? 역시 머리가 나빠. 제 발로 먹이를 자처하다니.”“좋아. 살살 상대해주지. 그래야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낄낄 웃는 요괴, 한 놈은 마르고 다른 한 놈은 뚱뚱했는데 둘 다 키가 무척 컸다.이렇게 자그맣고 장검을 든 자세도 어색한 여자애가 무슨 수로 요괴들을 물리치겠다는 건지, 당연히 승산이 없었다.그럼 어디 솜씨 좀 볼까?둘은 히죽히죽 웃으며 거들먹거렸다.“주, 죽어도 난 몰라!”천 번, 만 번을 휘두르면 하나라도 걸리겠지.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까이는 못 오겠지.시간이라도 벌자.이런 심정으로 리는 칼을 이쪽저쪽 마구 휘둘렀다.“어이쿠, 어이쿠.”칼끝을 요리조리 피하며 요괴들은 일부러 어이쿠, 어이쿠, 소리를 내었다.낄낄낄, 제법인데 아가씨? 리를 놀리는 것이다.“칼싸움 놀이는 끝났어. 이제 그럼...”이제 그럼 슬슬 요리를 해 볼까? 라고 말하려는데 칼끝이 요괴 얼굴에 닿았다.푹 하고 오른쪽 눈을 찌르더니 그대로 휙 하고 위로 그었다.으아악! 눈을 다친 놈은 뚱뚱한 놈이었다.그　꼴을 보고 마른 요괴가, 감히 인간 주제에,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었다.“네년의 머리통부터 먹어주마!”두 요괴가 아가리를 쩍 벌리자, 아가리가 얼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누렇고 뾰족뾰족한 이빨들, 위아래 크고 굵은 송곳니가 있고,끈적끈적한 침이 이빨과 이빨 사이에 엉겨서 실처럼 쭉 늘어나고 질질 흘렀다.둘은 동시에 이빨을 리의 머리에 박으려고 했다.“꺄아악!”이때, 뒤에 있던 여자가 높이 뛰어올랐다.공중에서 빙글 반 바퀴 돌더니,거꾸로 내려오며 각각 한 손에 요괴 머리통을 움켜쥔 그대로,물구나무자세로 섰다.커헉! 머리통을 조여오는 엄청난 악력,요괴 둘은 숨이 멎는 듯했다.몸이 뒤로 휘청했고,여자가 나머지 반 바퀴를 돌자,콰직! 모가지가 꺾이고, 그대로 머리통이 뽑혔다.푸슉! 대량의 피가 솟구쳤다.착지하는 여자의 가벼운 몸놀림,양손에는 요괴 머리통이,머리통이 없는 요괴의 몸체가 쓰러지며 물보라가 튀었다.여자는 미련 없이 머리통을 개울에 처박았다.잔잔한 물결, 물색은 점차 피색이 되었고,머리통과 몸체가 분리된 두 요괴의 시체가 둥실 수면 떴다.고요하고 썰렁한 개울가.피는 리한테도 튀어서 피가 잔뜩 묻은 리의 얼굴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이렇게 간단하게 해치운 여자의 솜씨도 솜씨지만,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이 그렇게 쉽게 똑하고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보니 충격이 상당했다.피, 둥실둥실 요괴 머리 하나가 리의 허리를 툭, 하고 건드렸다.리한테 눈을 찔려 부릅뜬 오른쪽 눈알이 찢어져 있었다.“시, 싫어! 저리가아아!!”기겁을 하며 리는 마구 뒷걸음질을 쳤다.뒷걸음질을 치는데 물 밖으로 나가는 여자의 등이 보였다.리는 얼른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저기요! 저기요!”첨벙첨벙 뛰어가며 리는 여자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소리쳤지만 여자는 들은 체도 안 했다.여자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았고,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가는 속도가 무척 빨랐다.그래도 리는 필사적으로 개울을 나와 뒤를 따라갔다.헉헉, 겨우 따라잡았을 땐 숨이 너무 찼고,“자, 잠깐, 잠깐만요.”급한 마음에 여자의 허리춤에 있던 천을 잡아당겼다.숨이 너무 찼다.숨 고르느라 리는 허리를 앞으로 푹 꺾었다.매듭이 느슨했는지 천이 스르륵 여자의 몸에서 떨어져나왔다.같은 여자끼리지만 그래도 낯선 사람에게 알몸을 보인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다.리는 얼른 천을 되돌려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미안해요.”천을 내밀며 굽혔던 허리를 폈다.펴고 시선을 드니,“...”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리는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다.이것은 남자한테만 있다는 그것이 아닌가!그랬다.리가 여자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사실 여자가 아니었던 것이다.착각은 리,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못 볼 것을 본 리는 또 충격을 먹었다.충격에 이어 충격, 충격, 충격,이러다 리는 정말로 머리가 어떻게 돼버릴지도 몰랐다.아. 이대로 꺼지고 싶다. 영영.남자가 홱 하고 천을 낚아챘다.의외로 창피해한다거나 당황한 기색은 없어 보였는데,뭘 보느냐는 얼굴로, 리를 노려보는 남자의 눈은 매우 차가웠다.리는 남자의 눈을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다.양쪽 눈 색깔이 달랐다.왼쪽은 황금색, 오른쪽은 붉은색,둘 다 따뜻한 색감이었지만 묘하게도 눈에 담고 눈빛이 차가웠다.또 살벌해서 시선을 오래 마주치기가 힘들 정도였다.눈매가 날카로웠다.위로 찢어진 아몬드 모양 눈에 눈동자는 완벽한 동그라미,하지만 투명하고 예쁜 눈동자였다.그렇게 리가 멍하니 있는데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큰 손, 손가락이 길쭉길쭉했다.만나서 반갑다고 악수?이게 맞나 긴가민가하며 리도 손을 내밀어 남자의 손을 잡았다.다음은 흔들기? 낯선 사람과 악수는 처음이라 어색했다.아, 네, 반가워요.머뭇머뭇 잡고 흔드는데 남자가 매정하게 뿌리쳤다.이건 또 뭐 하는 거냐는 얼굴이었다.“내 칼. 내 칼 말이야.”퉁명스럽게 말하면서 남자는 다시 손바닥을 펴 보였다.아차! 정신이 없어서 잊어먹고 있었다.리는 남자의 장검을 계속 쥐고 있었고, 그것을 남자가 눈짓으로 가리켰다.“오, 옷이나 좀 입고 달라 말라 해요!”손이 아닌 남자의 가슴팍에, 리는 장검을 떠넘기다시피 했다그리고 뒤돌아섰다.너무너무 창피했다.의도한 바는 절대 아니었지만 목욕하는 걸 훔쳐봤지,홀딱 베껴놨지, 홀딱 베껴놓고 빤히 쳐다봤지,그런 주제에 뭐가 반갑다고 악수할 생각을 하다니.나, 이렇게 뻔뻔한 애였나?잠자코 쭈그리고 앉아 리는 남자를 기다렸는데 뒤가 어째 조용했다.보니, 남자가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었다.“기다려요!”벌떡 일어나 후다닥 남자를 쫓아갔지만 역시나 남자는 기다려주지 않았다.리는 발이 빠르다.남자를 따라잡은 리는 남자와 조금 거리를 두고 뒤를 졸졸 따라갔다.남자는 리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눈치였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를 했다.그렇게 무시하더니 그래도 리가 졸졸 따라오자,칼을 뽑아 팩 뒤돌아섰다.힉!리는 뒤로 풀썩 주저앉았다.아주 근소한 차이로 조금 더 갔으면 하마터면 찔릴 뻔했다.여기서 리는 살짝 울컥했다.아니 나는 그냥 길 잃은 보통 여자애일 뿐인데,저렇게 칼까지 뽑아가며 경계할 필요가 있나!그래도 아까는 요괴한테서 구해주려고 위험까지 무릅썼다.뭐,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참 정나미 뚝 떨어지는 사람이다.되게 차갑네.“따라오지 않는 게 좋을 텐데.”죽고 싶지 않다면.남자는 피가 묻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풀어헤쳤던 머리칼은 반 묶음을 하여 거추장스럽지 않게 대충 정리한 상태였다.깔끔하다고는 볼 수 없는 행색이었지만 패션의 완성은 몸매라고,그것마저 패션으로 보일 만큼 훤칠하고 수려한 용모였다.그렇지만 아까도 느꼈지만,예쁘장한 얼굴에 눈빛이 살벌하고 차가운 게 어쩐지 사람을 꺼리는 분위기였다.게다가 저 피가 묻은 옷도 그렇고.그래도 리는 개의치 않았다.왜냐하면, 탁이도 그렇기 때문이다.탁이도 예쁘장한 얼굴이지만 눈빛이 저렇다.툭하면 싸움질이니 옷도 자주 저런 꼴이고.아까처럼 여기는 요괴가 인간을 먹겠다고 덤비는 괴상한 세상인데 저런 게 무슨 대수라고.그리고 탁이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물론 움직이는 생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이런 부류의 인간은 리한테 익숙하다.리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다.“같이 가요.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까도 살려주셨는데 베푸신 친절, 이왕이면 끝까지...”“내가 왜 그래야 하지? 따라오지 마. 성가시니까.”남자는 칼을 거두었다.팩 뒤돌아 다시 자기 갈 길을 가는 남자를 리는 또 졸졸 따라갔다.“성가시게 구는 일은 없어요.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 초능력은 없지만 돈이라면 구해다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서든요.”이렇게 말하면서 소매치기란 말은 하지 않았다.그러고 보니 이 상황, 누가 누구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 상황이 왠지 낯설지가 않았다.리는 도령의 모습을 한 소백을 잠깐 떠올렸다가 얼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여기에 집중하자, 탁이를 찾는 것이 우선이야.이상한 세계, 탁이가 없는 지금,이대로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고 겁이 났다.리는 또 혼자 내버려지고 싶지 않았다.졸졸 따라가는 리, 성큼성큼 걷는 남자,남자는 뒤에서 조잘조잘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운지 미간을 찌푸렸다.말이 많군. 벌써 성가시게 굴고 있잖아.진짜 제대로 쫓아버릴 셈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섰다.뒤를 도는데 리가 비명을 질렀다.“꺄아악!”아까 그 새였다.아까, 그 온통 눈이 파랗고 몸이 까맣고 목을 360도 회전했던 새가 또 나타나 리를 공격했다.뒤에서 슥 날아와 발로 머리를 치고 가더니 반대편 나뭇가지에 앉았다.꺄아악! 리와 똑같은 비명을 흉내 내었다.뒤이어 엄청난 수의 새떼가 시커멓게 몰려오고 있었다.그것은 마치 크고 두툼한 먹구름 같았고,리와 남자가 있는 곳으로 우르르 다가오는 게 공격할 기세였다.새들은 진짜로 공격을 했다.그런데 남자는 공격하지 않고 리만 공격했다.차례차례, 부리로 콕콕 쪼고 발톱으로 할퀴었다.휙 저만치 날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똑같은 공격을 반복했다.마치 리가 자기네들의 적이라도 되는 양 서로 합심하여 물리치려고 하는 것 같았다.그 꼴을 보고 있던 남자는,자기가 보기에 리는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 여자애일 뿐인데 저 새가 왜 저러나 어리둥절했다.저리 가! 저리 가!새들의 공격에 방어도 못 하고 리는 그저 머리를 감싼 채 아프다고 엉엉 울었다.그런 주제에 아까는 자기를 구하겠다며 저보다 큰 요괴들한테 겁도 없이 덤비다니,그것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그 일을 생각하니,남자는 차마 리를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게 되었다.그러고 보니 저 아이, 차림새가 남다르다.입고 있는 옷을 보아도 인간족 어느 부족인지 모르겠다.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 아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다.진짜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았다.“쳇.”진짜 성가시다는 얼굴로 남자는 리를 번쩍 안아 들었다.그리고 뛰기 시작했다.너, 저 새들한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거야?몰라요! 몰라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쟤들이 저러는 거예요. 엉엉.새들의 공격은 점점 사나워졌고,남자가 휘두르는 칼끝에서 날개며 목이 툭툭 잘려져 나갔다.그렇게 동료가 죽어 나가는 데도 새들은 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끈질기게 달려들었다.적당히 하지?남자는 보자 보자 하니까 더는 못 참겠는지 뛰기를 멈추고 홱 몸을 돌렸다.쓸데없이 힘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게 되었다.끼루룩, 끼룩, 끼루루룩! 시커먼 새떼,번뜩이는 파랑 눈동자들,남자의 황금색 붉은색 눈동자에 살기가 서리자 새들은 가까이 오기를 멈추었다.그들은 대치가 상태였는데,그것은 새들이 도망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었다.귀찮으니 한꺼번에 보내주지.남자가 한쪽 입꼬리를 씩 올렸다.새들을 노려보는 남자의 눈이 무언가를 가늠하듯 가느다래졌다.오른쪽 붉은색 눈동자 밑이 움찔했다.휘잉 하고 바람이 불었다.보라색 이파리들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져나와 날렸고,하얀 모래바람이 일어났다.휙휙휙 바람은 마치 그물을 짜듯 꼼짝 못 하는 새떼 무리를 가두었고,씨익 남자가 웃자,팍! 하고 바람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새들의 몸통을 으깨버렸다.여기저기 튀는 조각 난 사체 덩어리.바람이 잦아들었다.하얗게 일어났던 모래가 걷히고,시야가 선명해지고,조각 난 까만 사체들이 비처럼 쏟아졌다.살랑살랑 흩날리듯 떨어지는 보라색 이파리들.“괴, 굉장하다!”“너, 이런 일이 처음인가?”리를 품에서 내려주고 남자가 물었다.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되물으니, 남자는 조금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다.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그는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다.이곳은 ‘흰 모래 숲’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그리고 그 새는 이 숲에 사는 ‘까오리’라는 새인데,원래 장난이 심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본성은 착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았다.약한 리만 공격하는 태도를 보니,사람을 가리는 약은 머리를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해로운 새는 아니었다.그런데 최근 각이 나타나고는 모든 게 이상해졌다.인간 고기를 먹지 않던 요괴가 인간 고기를 탐하기 시작했고,온순했던 생명체들이 포악해지는 등등 정신 나간 증세를 보였다.마이너스 플러스 파동의 균형이 깨지면서 모든 게 점점 괴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그것은 불길의 전초전이었다.각.각이 나타났다.생각에 잠긴 남자의 눈빛에 살기가 돌았다.각이 나타났다는 것.그것은 곧... 자기 안의 적귀가 눈을 뜰 것이라는 의미였다.적귀. 그 괴물은 세계를 파멸시키는 위력을 지닌 존재이다.신족, 인간족, 요괴족,모두가 없애든지 생포하든지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쳇. 적귀라니. 난 너희들 살인병기 따위가 아니야. 빌어먹을.남자는 피가 묻고 찢어진 자신의 옷소매를 무섭게 노려보았다.그리고 생각했다.그 때문에 도망쳐 나왔다.아니,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그 여자로부터.그 여자는 내가 월흔족 아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나를 거두어 주었다.하지만 내가 적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와 죽이려고 했다.하지만 나는 살고 싶었다.오직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이었다.그래서 그 여자를 죽였다.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죽여야만 한다.그것이 무엇일지라도.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남자는 계속 생각했다.각을 죽인다.내가 적귀로 변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서 죽일 것이다.“저... 저기요?”그렇게 말하는 소리에 남자는 정신이 퍼뜩 들었다.생각이 너무 많았다.남자는 눈빛에 살기를 거두고 물끄러미 리를 쳐다보았다.이 아이, 이대로 두면 내일이라도 분명 죽을 것이다.요괴의 먹이가 되든 짐승의 먹이가 되든 여기서 길을 잃어 굶어 죽든.무언가... 어쩔 수가 없게 되었다.남자는 한숨을 푹 쉬었다.“너, 누군가를 찾는다고 했지?”묻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팩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네? 네! 오빠요. 오빠를 찾고 있어요.”말하면서 그 뒤를 리가 졸졸 따라갔다.“정말 따라가도 되는 거죠?”“마음대로 해. 하지만 성가시게 굴면 바로 버릴 거야.”“고맙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아, 나는 ‘유 리’예요. ‘리’라고 불러요. 이름이 뭐예요?”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남자가 가던 길을 우뚝 멈췄다.대답은 안 해주고 고개만 돌려 리를 빤히 보았다.그런 건 알아서 뭐하냐는 얼굴이었다.보기보다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눈빛이 또 차가워졌다.왼쪽의 황금색, 오른쪽의 붉은색, 완벽한 동그라미 모양의 눈동자.“아, 그 눈!”리가 남자의 눈을 가리키자,남자가 팩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언제나 이 눈동자가 문제였다.월흔족, 그리고 낙인.이 눈동자 탓에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다른 종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다.그렇다고 눈동자를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눈동자는 그에게 있어서 열등감을 일으키는 낙인과 같은 것이었다.너는 살 가치가 없어. 그런 존재야.늘 그랬다.늘 이런 식으로,이 빌어먹을 눈동자는 그에게 악마같이 속삭여 온 것이다.“정말 예뻐요. 아까부터 말해주고 싶었는데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어요.”이게? 남자가 다시 리를 쳐다보았다.이게 예쁘다니 참 이상한 여자애라고 생각했다.진짜 이상한 여자애다.아까는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더니 지금은 이 눈동자가 좋다고 한다.“너는 이게 싫지 않은가?”진지하게 물은 질문이었는데 리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그게 왜요? 싫으면 나 줘요, 쿡쿡 웃으면서 농담을 했다.그런 리에게서 남자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적비. 내 이름은 적비다.”리. 리라고 했던가? 이 아이, 아무래도 진짜 내버려 둘 수 없게 되었다.“적비! 아, 그리고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리가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적비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몸짓인지는 모르겠지만,딱히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인간족은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각각의 문화도 다양한 까닭이었다.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해가 지기 전에 여길 빠져나가야 했다.빠져나가면 먼저 마을을 찾아 입고 있는 옷부터 처리할 계획이었다.그리고 저 아이가 입을 옷도 하나 필요하다.같이 가요! 리가 다다닥 뛰어와 그의 옆에 바짝 붙었다.“저요, 신세는 꼭 갚을게요. 성가시게 구는 일도 없을 거고요. 오빠만 찾으면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시끄러워.”“앗! 죄송해요. 제가 보기보다 의외로 말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알아.”“알았어요? 후후. 그런데 그런 굉장한 능력은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나한테도 가르쳐줄 수 있어요? 가르쳐 주면...”“싫어.”“알았어요. 그럼 있잖아요.”“시끄러워.”“네.”뭐. 이대로도 나쁘진 않겠지.그렇게 생각하며 적비는 계속 걸었다.각을 찾을 때까지 이대로 같이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라면서.오늘, 꽤 성가신 녀석을 하나 주웠다.성가시고, 시끄럽고,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별 쓸모가 없겠지만 그래도 곁에 두기로 했다.적귀로서의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고 불안은 여전했다.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지친 마음이, 굳은 어깨가, 아주 살짝 긴장이 풀어진다.가슴 속 깊이 몽글몽글하게 피어오르는 따스한 온기,어쩐지 기분이 좋아지는 적비였다.“예쁘다.”그렇게 리가 말하고, 리의 시선을 따라 적비도 고개를 들었다.노을.하늘은 보라색이고,하늘 제일 아랫부분에 기다랗게 깔린 빛깔,그 빛깔은 리의 말대로 참 예쁜 주홍색 빛깔이었다.^^^월흔의 시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자멸하는 달꿈속에서, 아휘는 요요를 품에 안았다.요요.요괴족인 그녀의 피부는 옥빛이고, 자그만 귀는 끝이 뾰족하고,투명한 눈동자는 평소에는 초록색이었다가,이렇게 기분이 좋거나 흥분을 하면 빨갛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아휘의 손가락은 기다랗다.그리고 적당히 힘이 있고 섬세하고 배려가 있으며 애정이 있다.그의 입술이, 손가락이, 요요를 애무했다.그녀의 풍성한 머리카락에, 예쁜 이마에, 도톰한 입술에, 아름다운 쇄골에, 부드러운 젖가슴에, 잘록한 허리에, 아휘는 요요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요요가 숨을 들이켜며 아휘를 더 세게, 꽉, 끌어안았다.어두침침한 아휘의 오두막, 침대 나무가 삐걱대는 소리, 공기는 차갑고, 네모난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겨울 달빛은 조용했다.달빛에 비치는 요요의 낭창낭창한 허리, 그런 요요를 아휘는 격렬히 파고들었다.요요와 아휘, 둘 다 흠뻑 젖어 미끈미끈했다.요요가 얼굴을 아휘의 목덜미에 묻고 속삭였다.인간의 살 냄새, 너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말하는 목소리에 약간의 신음이 섞여 있었다.그랬다.아휘는 인간족이고 요요는 요괴족이었다.그들이 사는 마을은 마계의 산촌이었다.사는 가구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외지인의 왕래가 드문 작은 마을이었는데,아휘는 이곳의 유일한 인간족이었다.중간계의 상품을 마계에 파는 행상이었던 그는 이곳에서 요요에게 반해 아예 눌러살게 된 것이었다.그러나 이곳은 종족의 순수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마을이었다.아휘와 요요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다.사랑했지만, 대놓고 핍박은 주지 않았을지라도 쉬쉬하며 보는 마을의 눈은 비겁하면서도 표리부동했다.그랬기에 이렇게 몰래 만나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새벽녘의 달그림자가 거의 사라져가는 시간,월흔의 시간이면 둘의 행위도 끝내야만 했다.그래야만 둘은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요요를 안은 아휘, 아휘를 안은 요요,둘은 서로를 더욱 옭아매었다.점점 가빠지는 숨,서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집요한 몸짓,절정,요요의 등이 활처럼 휘었다.초승달,달을 가로질러 얇은 구름이 조용하게 흘러간다.위험을 먼저 감지한 것은 요요였다.요요는 요괴답게 예민한 감각기관을 활짝 열어 집중했다.아휘의 오두막이 불타고 있었다.하하하 웃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고,들켰구나!아휘와 요요는 이것이 같은 마을에 사는 요괴의 짓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챘다.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나오지 못하도록 무언가로 막아 놓았는지 열리지 않았다.이대로 아휘와 요요를 가둔 채 오두막 전체를 태우려고 밖에서 불을 지른 것이다.쾅! 쾅!있는 힘을 다해 아휘는 온몸을 문에 부딪혔다.문을 박살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나가야만 했다.밖에서 요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꼴 좋다! 히히.”“어디 실컷 해보시지 그래봤자 나약한 인간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발악도 뭐가 있어야 하지. 없는 힘 쥐어짜지 말고 순순히 죽어주시지?”“내버려 둬. 저도 살겠다고 저러는데 불쌍하잖아.”“저렇게 해줘야 고기 맛이 부드러워지지. 난생처음 인간 고기라니. 흐흐.”그래도 아휘는 포기하지 않고 문을 부수려고 했다.살갗이 쓸려 피가 났고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여기서 더 하다가는 뼈에 금이 갈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불에 타 죽든, 요괴의 먹이가 되든,자기는 죽더라도 요요만큼은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했다.아휘는 절박했다. 그리고 분노했다.불길, 연기,그것들은 무서운 기세로 아휘와 요요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그때였다.챙그랑!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아휘는 하던 짓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요요가 창문을 부수고 있었다.요괴인 그녀는 괴력으로 창문의 유리창을 깨고,창문에 붙은 나무 격자까지 모두 떼어내고 있었다.그녀는 탈출할 수 있는 네모난 구멍을 만들었다.아휘! 말하며 요요가 팔을 뻗었고,그녀의 손가락에서부터 팔 전체는 여기저기 유리가 박혀있었다.그리고 피가 철철 나고 있었다.그 손을 아휘가 꽉 쥐었다.아휘의 손에도 피가 묻어났다.둘은 오두막을 빠져나와 그 길로 바로 산속으로 도망쳤다.쉬지 않고 도망쳤지만 둘은 금세 따라잡히고 말았다.아휘와 요요를 추격한 요괴는 장정 셋이었다.더는 도망은 무리였다.또 이렇게 덩치가 크고 혈기왕성한 남자 요괴 셋을,인간인 아휘와 여자 요괴인 요요가 상대한다는 것은 더더욱 무리였다.여기서 끝인가?아휘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두렵지 않았지만 요요는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내가 요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유로 요요가 이런 위험한 꼴을 당해야 하다니.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했다.“여자는 상관없잖아!”요요를 끌어당겨 등 뒤로 보내는 아휘의 분노에 찬 눈동자.“상관없긴. 왜 상관이 없어. 인간이랑 놀아났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죽어줘야지.”“그년 때문에 마을 체면이 말이 아냐. 벌레 같은 년놈들. 카악, 퉷!”“일단 너부터 먹고, 여자는 실컷 데리고 놀다가 죽여주지. 히히.”머리는 내 차지다!그렇게 말하면서 요괴 하나가 아휘를 노리고 긴 손톱을 휘둘렀다.높이 뛰어올라 그대로 손톱을 머리통에 내리꽂으려고 했는데,“안 돼!”요요가 재빨리 아휘를 감싸 그를 보호했다.콰직!요괴의 손톱은 요요의 머리통에 박히고 말았다.앗! 요괴가 손톱을 빼고 뒤로 펄쩍 뛰어 저만치 떨어졌고,요요의 머리통에서 피가 솟구쳤다.제길. 요괴는 여자를 데리고 놀지 못하게 됐다며 침을 뱉었다.“요요!”요요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요요! 요요! 아휘는 요요를 안고 절규했다.요요... 눈물이 흘렀고,눈물이 앞을 가려 요요의 색깔이 번져 보였다.번져 보인 요요의 색깔은 온통 피로 물들어 희끄무레한 붉은색이었다.절박한 심정으로 요요의 머리를 감싼 아휘의 두 손이 벌벌 떨렸다.그가 아무리 피가 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써도 그것은 되지도 않는 일이었다.손가락, 손가락, 사이사이를 타고 피가 흘렀다.피에 젖은 요요의 얼굴,그 예뻤던 이목구비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요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감상은 거기까지다!”“갈기갈기 찢어주마!”다음은 아휘의 차례였다.인간 고기를 먹을 생각에 잔뜩 흥분한 요괴들의 눈은 시뻘겠다.아가리를 쩍 벌리자,뾰족뾰족한 이빨이 무수하게 돋아있었다.그들은 단박에 물어뜯을 기세로 동시에 달려들었다.크아아아!요괴가 내지르는 괴성,아휘는 눈을 감았다.요요... 쾅! 쾅! 쾅!눈을 감은 아휘는 쾅, 쾅, 쾅, 하는 큰 소리를 연달아 세 번 들었다.그것은 마치 바위가 강철판에 튕겨 나가는 듯한 쇳소리 같았다.내가 죽지 않고 살다니,예상했던 전개와 달랐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아휘는 눈을 떴다.그가 눈을 뜨자,요괴들이 저만치 나가떨어져 차례로 땅에 내리꽂히고 있었다.그리고 백색의 불투명한 방호벽이 눈앞에 드리워져 있었다.그것이 아휘를 요괴들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불공평하군.”그렇게 말하는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아휘는 시선을 들었다.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남자 하나가 태연한 얼굴을 하고는 옆에 서 있었다.그는 신족인 나기였다.나기의 똑바른 등, 앞으로 곧게 뻗은 팔, 꼿꼿하게 편 손바닥,쇠를 수행한 나기는 쇠의 기를 장벽화하여 마치 방패와 같은 방호벽을 치고 있었다.구해준 건가?그런 그를 보고 아휘는 그가 신족임을 단박에 알아챘다.아휘를 내려다보는 나기의 날카로운 눈매, 가지런한 속눈썹,그의 눈동자는 차가운 은색이다.“살고 싶은가?”그렇게 나기가 물었지만 아휘는 대답하지 못했다.요요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대신하여 죽고 없는 이제,요요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그런 삶은 아휘에게 죽음보다 못함을 의미했다.그런 아휘를,나기는 잠시 쳐다보다가 딱히 대답을 바라고 한 질문은 아니었는지 시선을 거두었다.방호벽을 펼치던 다섯 손가락을 오므렸다.오므리자,백색의 불투명한 방호벽의 단단한 형체가 흐트러지더니,이어서 또 다른 형태로 탈바꿈했다.그의 손가락 끝에서 복종하는 영력,절도가 있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었다.방패였던 그것은 양날의 장검으로 변했다.나기가 쇠의 영력으로 주조한 것이었다.그 신기는 쓰는 이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베는 위력 또한,무엇이든지 단 한 번에 벨 수 있는 검이었다.한계를 모르는 검.은색의, 삶과 죽음의 장검이 아휘의 앞에 놓였다.고독하고 고요한 자태였다.나기가 말했다.“요괴인가? 너인가?”“.......”“누구를 죽이든 살리든 선택은 네 것이다.”나기가 관여하기는 거기까지였다.나기는 그렇게 아휘에게 검 한 자루만을 남기더니 뒤로 물러섰다.그는 뒤로 높이 풀쩍 몸을 날리더니,아름드리나무에 가볍게 착지하였다.겨울의 빈 나뭇가지,쭉쭉 뻗은 나뭇가지는 마르고 연약했으나 나기는 개의치 않고 그곳에 걸터앉았다.사뿐히 앉는 자태가 가벼운 몸놀림이었다.나뭇가지는 그를 지탱했고,나기의 자세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표정 없는 얼굴,그는 이제부터 방관자였다.아휘는 검을 바라보았다.요요가 없다.요요의 살, 요요의 피, 이렇게나 선명하고 확실한데,나는 이제 그녀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텅 비어버린, 극도의 공허감. 아휘는 분노했다.분노, 분노, 분노, 분노의 끝은 절망이었다.살고 싶은가?닥쳐라.죽고 싶은가?닥쳐라.살든 죽든 목숨 같은 거,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아무려면 어떠냐 같은 소리였다.아휘는 요요를 내려놓고 검을 집어들었다.그의 눈빛에 살기가 번뜩였다.“다 죽여버리겠어!”요요를 잃었다.저들이 요요를 죽였다.요요가 없는 빈자리를 네놈들의 피와 살로 채울 수만 있다면,아휘는 무슨 짓이든 할 태세였다.요요가 없다는 분노, 요요가 없다는 갈증,분노를 삭이고 갈증을 채우기 위해,아휘는 베고, 베고, 또 베었다.요괴 셋이 달려들었다.하지만 나기가 주조한 검의 기에 아휘의 깊은 살기가 더해져,검은 기세는 잔인할 정도로 사나웠다.그 기세에 검을 휘두르는 족족 요괴들은 단박에 사지가 분리되었다.괴성과 비명,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요괴들이 손톱을 휘두르고 이빨을 드러내었다.동료의 머리통이, 팔과 다리가,손모가지가 절단되어 툭툭 땅에 떨어지고 눈알이 도려지고 피가 솟구쳤다.그 끔찍한 장면들을 보면서 요괴들은 아휘의 잔혹성에 겁을 먹기 시작했다.실컷 까불어대던 기세는 온데간데없어졌다.그러나 그들이 아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과,자신들이 무지 후회할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그땐 이미 너무 늦었다.전멸.절단된 요괴들의 사체 조각들이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었다.아휘는 사체들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었다.피를 흠뻑 뒤집어쓴 아휘에게서 피비린내가 지독했다.숨 막힐 정도로 역한 냄새였다.그렇게나 갈기갈기 찢어놓았는데도 아휘의 갈증은 전혀 채워지지 않았다.채워지기는커녕,자신을 버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전혀 위로받지 못했다.위로받지 못했다는 실망감, 절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차갑고 딱딱한 땅,제길! 아휘는 피가 묻은 주먹으로 땅바닥을 내리쳤다.요괴의 팔,어깨에서 절단되어 피범벅이 된 요괴의 살덩이가 아휘의 눈에 들어왔다.너덜너덜한 살점에 툭 튀어나온 뼈,구부린 손가락에는 긴 손톱이.약육강식.본디 강한 요괴는 약한 인간을 먹는다.그리고 강한 인간도 약한 요괴를 먹는다.그것이 공평이다.아휘는 요괴의 피와 살을 먹기 시작했다.하나도 남김없이 먹을 태세였다.그는 쉬지 않고 살덩이들을 입속에 욱여넣었다.고요한 산속,우적우적 살점을 씹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리였다.부족했다.요요의 죽음은,그들을 찢어발기는 것만으로는 절대 보상받을 수 없는 상처였다.인간을 얕본 죗값, 찢어발겨 먹어 줄 테다.살점을 뜯는 아휘의 입은 무자비했고,침과 핏물이 서로 뒤엉겨 입 가에서 질질 흘렀다.아휘는 그렇게 하나, 하나, 사체를 먹어치웠다.“으아아악!”고통이 엄습했다.온 세포가 파괴되는 고통이었다.아휘의 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새카맣던 눈동자 색깔이 각각 다른 색깔로 변했다.오른쪽은 회색, 왼쪽은 초록색이었다.구릿빛이었던 피부는 실핏줄이 보일 정도로 하얗고 창백해졌으며,짧고 검은 머리카락은 점점 자라나더니 허리까지 닿아 하얗게 새버렸다.한 올 한 올 하나도 빠짐없는 백색이었다.겨울의 새벽, 차가운 초승달,달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월흔의 시간,마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자멸하는 듯했다.나는 너를 살려 준 적이 없다. 모든 선택은 네가 했다.“월흔이 된 건가.”인과응보군.생김새가 변해버린 아휘를 보고 나기는 그렇게 말했다.아휘는 하던 짓을 멈추었다.고개는 들지 않고 눈앞에 있는 나기의 신발을 노려보았다.스스로가 변했다는 것은 아휘 자신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변종으로서의 월흔.인간이 아닌 것이 돼버렸다.월흔으로 산다는 것,그것은 외로운 삶을 의미했다.더구나 의지와 상관없이,인간이었던 삶을 잃고 월흔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였다.요요를 잃고,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잃고,월흔이라는 변종이 된 그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삶을 그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고독, 그리움, 분노, 갈증,이것들은 아휘가 평생을 지고 살아야 할 업보였다.피가 스며든 흙은 싸늘했다.나기의 신발을 노려보는 아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다.눈물은 턱에서 뚝뚝 떨어졌다.땅에 떨어진 그것은 피와 섞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아휘가 입을 떼었다.“어째서 당신...어째서...”“어째서 너의 여자를 구해주지 않았는지, 나를 원망하는 것인가?”“당신, 구해줄 수도 있었어... 어째서... 어째서...”“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일. 그리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당신은 내게 검을 주었어!”고개를 쳐들며 아휘가 소리쳤다.검이라도 일찍 줬더라면 일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였다.아휘는 나기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자기가 이렇게 괴물이 돼버린 것도 나기의 탓인 양.아휘의 회색 초록색 눈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살릴 수 있었는데! 왜 그녈 내버려 뒀지?애초에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야!“검은, 네게 기회를 준 것뿐.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녀에게도 있었다. 저들의 목적은 인간인 너였으니 요괴인 그녀는 너를 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어. 아니면 너를 두고 거래를 했거나.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그녀는 나를 위해...!”“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지? 이유가 뭐가 됐든 그것도 결국 그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스스로 선택한 일에 누군가가 참견 하길 바라다니 우습군. 그리고, 너는 왜 내게 그런 걸 원하는 거지?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다.”“...”“내가 네게 검을 준 것은, 그저 불공평이 싫었던 내 마음이었다. 분명히, 나는 너를 살려 준 적이 없다. 요괴를 죽인 것도, 요괴를 먹고 변종이 된 것도, 모든 선택은 네가 했다.”그 책임은 네게 있다.남 탓이나 하다니 어리석군.이렇게 말하는 나기의 눈빛은 담담했다.그 담담하기 짝이 없는 눈빛 탓에,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더 냉혹하고 모질게 들렸다.차갑고 조용한 달빛,어디선가 두 발인지 네 발인지 모를 짐승 소리가 났다.달빛을 받은 나기의 갸름한 얼굴, 단정한 자세.아휘는 고개를 쳐든 채 말없이 나기를 쳐다보았다.쳐다보며, 아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신족, 요괴족, 인간족,그 누구도 출신은 자신이 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인간족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타고난 능력이 약하니,절대 신족과 요괴족을 능가할 수 없었다.이 세계에서 목숨을 부지하려면,신족과 요괴족,그들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몸을 사려야 했다.거기에 암묵적 금기를 깨고 인간을 잡아먹는,요괴족의 폭주까지 늘어나는 추세였다.인간은,자칫 먹이가 되지 않으려면 살아도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신세였다.비록 노예의 신분은 아니지만,한마디로 눈치껏 알아서 기어주는 것이 인간족의 운명과도 같은 삶이었다.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다.순종의 대가가 겨우 이따위란 말인가?비굴의 결말이 결국 이것이란 말인가?아휘는 나기가 검 한 자루만 달랑 줄 뿐,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에 크게 실망했었다.아휘가 보기에,검은 단지 불공평이 거슬렸던 나기의 자기만족이었다.불공평이니 공평이니,그런 품위 있는 단어들은 강한 자들의 입에서나 나올법한 정의 놀이에 불과했다.나는 그에게 무엇을 바랐다는 말인가?아휘는 나기가 구원자라고 기대했지만,그는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했다.아휘는 신족인 나기가 요요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었다.생각했으나 아니었다.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가진 것이 없으니 버릴 것도 없었다.내가 틀렸다.각자 살아가는 것이다.순종도 비굴도 죄다 내 몫이다.그렇게 깨닫자, 아휘는 머릿속이 차가워졌다.현실이 보였고 이제껏 자신의 삶이 무척이나 바보같이 느껴졌다.아휘의 초록색 회색 눈동자,월흔으로 변종이 된 그는 더는 나약한 존재라고만은 할 수 없었다.그것은 아휘 자신도 느낄 수 있었는데,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으나,사실 속으로는 묘한 흥분 상태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마치 사나운 기운이 몸 내부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는 것 같았다.이성은 말짱한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감정을,아휘는 자기 몸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끓어오르고 끓어올라 폭발 직전의,어떤 힘을 그는 가까스로 누르고 있었다.미칠 것 같았다.여기서 이성을 잃는다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두려움, 증오심, 복수심, 불안과 원망,그리고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분노에 찬 의지,온갖 감정들이 아휘의 내부에서 소용돌이쳤다.꿇은 두 무릎 사이에 먹다 남은 요괴의 사체 조각이 있었고,저편에 요요가 그를 등지고 있었다.요요...아휘는 요요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그녀가 있는 쪽으로 손을 들어 뻗었다.손은 요괴의 피가 묻어 새빨갰다.손톱은 모두 바짝 날이 선, 예리하고 기다란 손톱이었다.그 손은 이제 인간의 손이 아니었다.요요의 머리카락을 쓸어주고,요요의 뺨을 어루만졌던,예전의 선량한 아휘의 손이 아니게 된 것이다.그때였다.크르르하는 낮고 거친 소리가 들렸다.나무가 빽빽하고 수풀이 우거진 어둠 속에서 싸늘한 기운이 흘러나왔다.아휘와 나기는 동시에 소리가 난 쪽으로 주의를 기울였다.살기를 느끼고 아휘는 예민하게 반응했다.그가 팩하고 빠르게 고개를 돌린 반면,나기는 여전히 담담한 눈빛이었다.힐끔 시선만 던지는 모양새였다.크르르르.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 마리의 시커먼 짐승이었다.‘흑요’라 불리는 이 짐승은 배가 고픈 모양인지,공격할 태세를 갖추고는 이쪽을 향해 서서히 다가왔다.짐승은,흡사 흑표범과 비슷한 생김새에 수사자의 갈기를 가지고 있었다.갈기 또한, 까매서 그야말로 온몸이 새까맸다.바람이 휭- 하고 불자 짐승의 갈기가 휘날렸다.마치 목덜미에서 검은 불꽃이 활활 타는 것 같았다.아몬드 모양의 황금색 눈에 세로줄의 까만 눈동자.무언가를 가늠하는 듯 흑요가 나기와 아휘를 번갈아 시선을 돌렸다.돌릴 때마다 눈동자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했다.크르르.시뻘건 잇몸 아래로 싯누렇고 뾰족뾰족한 이빨이 촘촘했다.위아래로 날카로운 송곳니는 바위도 뚫을 기세였다.두 발로 서면 아휘의 두 배는 족히 넘을 몸길이.날씬한 유선형의 몸집을 보니,틀림없이 발이 빠를뿐더러 잡혀서 저 몸집에 깔리면 뼈도 못 추릴 터였다.무리 짓지 않고 홀로 사는 흑요는 보통 짐승이 아니었다.흑요는 한 번 찍은 먹이는 절대 놓치는 법 없이 잔인했다.그러나 만일 흑요를 제압하고 죽이지 않는다면,흑요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흑요는 한 번 섬긴 주인은 절대복종하는 충성심이 강한 짐승이었다.이에 관심을 갖고 내로라하는 실력자들이 목숨을 걸고 흑요를 찾아다녔지만,워낙 그림자처럼 사는 놈이라 보기 드문 짐승이었다.흑요를 만나면 둘 중 하나였다.먹이가 되거나, 주인이 되거나.크르르르.이빨 사이사이에 엉긴 침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괴, 괴물이다.흑요를 모르는 아휘는 흑요의 덩치와 기괴한 생김새에 새파랗게 질렸다.엉덩이를 뒤로 질질 끌며 흑요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려고 했다.그랬지만 동시에 도망은 무리라는 것,하지만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신족인 나기가 옆에 있었지만,그가 흑요를 처리하겠다고 나설 리는 절대로 없었다.저 이빨이 목덜미에 박히면 끝장이다.그래도 싸워야 했기에 아휘는 아까 썼던 검을 찾았다.하지만 보이지 않았다.“이것을 찾는 건가?”나기를 보니, 검은 그가 가지고 있었다.그는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영력을 써서 검을 눈높이만큼 공중에 붕 띄우더니,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긴 것이다.칼날에 묻었던 요괴의 피는 깨끗이 지워지고,검 전체 테두리를 타고 희뿌연 은빛이 감돌았다.크르르르.괴물 같은 짐승은 점점 가까워 왔고,다급한 마음에 아휘는 검을 쥐려고 손을 뻗었으나,순간 나기는 검을 도로 거두어 사라지게 했다.검마저 가져가다니!신족이란 놈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시험하려고만 든다.아휘는 나기를 노려보았다.줬다 뺐다, 빌어먹을 신족새키!아휘의 마음을 읽었는지 나기가 피식 웃었다.“난 네게 잠시 빌려준 거지, 가지라고 준 게 아니었다. 그러니 언제 가져가든 내 마음이지. 그리고 저 아이가 배가 고프다지 않느냐. 단순히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겠다는데 그것을 내가 말릴 자격은 없지.”이렇게 말하며 나기는 흑요를 보고 싱긋 웃어 보였다.이제껏 한결같이 유지했던 무뚝뚝한 표정은 삭 사라지고 없었다.나기가 다시 아휘에게 고개를 돌렸다.돌렸을 때는 예의 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여기서 죽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월흔으로 사는 삶이 더 고통스러울 테니.”월흔으로 살아남든, 저것에 먹히든, 이게 너의 업보다.그렇게 말하면서 나기는 먹다 남은 요괴의 사체 조각을 가리켰다.그러고는 나기는 뒤돌아 저편 나무로 뛰어올랐다.신족인 나기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은 순식간이었다.크르르르.나기가 사라지자마자 흑요는 혼자 남은 아휘를 본격적으로 공격할 태세를 보였다.사나운 기세로 돌진하더니,몇 보 안 되는 거리에서 단숨에 뛰어올라 아휘를 덮쳤다.커다랗고 시커먼 그림자가 아휘를 뒤덮었고,아휘는 털썩 주저앉으며 두 팔로 얼굴을 가렸다.“크아아앙!”“으아아악!”으아악! 소리를 지르며 아휘는 꿈에서 깨어났다.꿈... 꿈이구나...실제가 아니라 꿈이었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다.하지만 실제가 아닌 것도 아니었다.왜냐하면, 그 모든 장면은 아휘가 진짜로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과거인데,이렇게 생생하게 되살아나다니 어쩐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아무리 꿈이었다지만 아휘는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온몸이 다 부들부들 떨렸다.자면서 식은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베개며 누운 자리가 흠뻑 젖어있었다.아휘는 땀으로 축축한 윗도리를 벗었다.저리로 휙 던져 협탁에 툭 떨어뜨렸다.두 단짜리의 네모난 협탁,옷은 툭 걸치듯 떨어졌다가 스르륵 흘러내려 바닥에 너부러지고 말았다.악몽이군.꿈자리가 사나워 기력을 모조리 빨렸는지 기운이 하나도 없다.아휘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불과 육 개월 남짓 지난 일이다.육 개월이란 말은 요요가 죽은 지도, 인간이었던 아휘가 월흔으로 산 지도,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다.앞으로 시간이 얼마만큼 흐르든지 간에 절대 아물지 않을 상처라는 거,잘 알고 있다.아마도 그 신족의 말대로 죽어서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하지만 아휘는 삶을 선택했다.어쩐지 아직은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기분에서였다.닫힌 커튼 사이로 얇고 가느다란 햇빛이 들어왔다.아휘는 침대에서 내려와 커튼을 완전히 걷었다.여름의 햇살,창문을 열자 매미가 우는 소리가 들이닥쳤다.아휘는 오늘도 무척이나 덥겠구나,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했다.“아휘! 아휘!”아휘를 부르며 나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목소리를 들은 아휘는 누군지 단박에 알아채고 미소를 지었다.갸름하고 뾰족한 아휘의 턱,턱 끝까지 내려오는 백색의 단발,아휘는 머리카락을 끌어올려 하나로 묶어 대충 정돈했다.얼굴 반쪽을 거의 가리다시피 흘러내린 앞머리,드러난 오른쪽 눈 색깔은 회색이었다.벌컥 문이 열리고,아휘는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를 보고 생긋 웃어 보였다.여자가 말했다.“일어났어?”벌써 해가 중천이야. 언제까지 잘 셈이었어?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요요였다.요요의 옥빛 피부, 요요의 초록색 눈동자, 끝이 뾰족하고 자그마한 귀,무언가가 못마땅할 때면 저렇게 한쪽 눈썹을 추켜 올리는 버릇까지.분명 그녀는 요요였다.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나의 요요.내가 없어지면 너는 어떨까? 슬플 거야. 슬퍼서 죽어버릴 거야.아휘의 회색 눈동자는 투명하고, 윤기가 나고, 고요하다.그 눈동자 안에서 요요가 턱을 든 채,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아휘를 올려다보았다.그녀는 두 손으로 아휘의 얼굴을 감쌌다.살짝 끌어내려 이마를 콩 하고 부딪쳤다.흠.진지한 얼굴로 잠시 그대로 있더니,“열은 없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지?”말하고는 두 손은 아휘의 얼굴에 둔 채 이마를 떼었다.요요는 아휘를 보자마자 그의 창백한 안색을 보고,감기에 걸리기라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했던 것이다.그녀는 땀에 젖어 동그랗게 색깔이 짙은 침대 시트를 발견했다.“세상에 땀 흘린 거 봐!”눈을 동그랗게 뜨며 시트를 걷으려고 아휘의 얼굴에서 손을 떼려고 했다.그 손을 아휘가 덥석 잡고는 도로 얼굴에 갖다 대었다.대고는 요요의 이마에 기대듯이 이마를 콩 하고 찧었다.조금만 더 이대로 있자.요요는 잡힌 손을 뺄 생각이 없었지만,아휘는 요요의 손에 살짝 힘을 주고 눈을 감았다.요요의 숨결,요요한테서는 바삭바삭한 햇살 냄새가 났다.그리고 따뜻했다.오직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가질 수 있는 기분 좋은 온기였다.그래, 요요는 살아있는 거야. 확실히.“아휘?”“꿈을 꿨어.”“그거 악몽이지? 손이 차가워.”“요요, 네가 없어지는 꿈. 죽어서 영영 없어져 버렸어.”“내가?”“응, 있지, 요요.”“응?”“넌 내가 없어지면 어떨까?”말하고는 이마를 떼고 아휘는 요요를 쳐다보았다.동시에 머릿속에선,아휘를 대신하여 머리통에 요괴의 손톱이 박히는 요요의 모습이 떠올랐다.그렇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다.아휘는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마치 요괴의 손톱이 심장을 뚫고 인정사정없이 찢어발기는 것만 같았다.아휘는 여전히 요요의 손을 감싸 쥔 채였고,그녀는 왼손만 빼내어 흘러내린 아휘의 앞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었다.아휘의,아름다운 초록색 눈동자.말없이 시선을 받아주던 요요가 입을 떼었다.“슬플 거야. 슬퍼서 죽어버릴 거야.”그렇게 말하는 요요의 눈동자는,정말로 아휘가 죽기라도 한 듯 진짜로 슬퍼 보였다.매미가 울었다.열린 창문, 네모난 햇볕,아휘는 창문을 등지고 있었고,두 사람 다 얼굴에 얇은 그늘이 졌다.흘러가는 크고 두툼한 구름.아휘가 입을 꾹 다물었다.그렇게 말없이 요요를 바라보고만 있는데 요요가 느닷없이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풋, 하더니 푸하하,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배꼽을 잡고 웃어대었다.요요?아휘는 어리둥절했다.미안, 미안,요요는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겨우 웃음을 멈추었다.“구운 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구운 님한테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 되잖아.말하면서 허리에 두 손을 올리는 요요의 팔은 가늘지만 씩씩했다.그녀는 아휘에게 별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며,우울한 농담은 그만하고 내려와서 밥이나 먹으라고 했다.밥 먹고 구운 님이 시키신,산에 약초를 캐러 가는 일을 까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요요가 나무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아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구운.구운은 이 마을의 의원이었다.그리고 아휘의 스승이기도 했다.구운이 처음부터 이 마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그가 이곳에 온 지는 육 개월 남짓,비록 작은 마을에서 의원으로 지내는 처지지만,그의 실력은 실로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얼마나 대단하냐면,질병이란 질병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었다.심지어는 병이나 사고로 목숨이 끊어진 생명체의 목숨도 다시 붙게 할 줄 알았다.어제는 어린 요괴 하나가 계곡물에서 놀다가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는데,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아이의 부모가 아이 시체를 안고 울며불며 구운을 찾아왔다.구운은 시체를 보고도 태연했다.깊은 물과 같은 잔잔한 눈동자였다.마치 어차피 내가 다시 살려 놓을 텐데 뭘 그리 울고 그러느냐,라고 담담히 달래는 것 같았다.그리고 그는 진짜로 아이를 살려내었다.아이의 부모는 고맙다며 그 자리에서 구운에게 절을 했다.이러한 일은 이 마을에선 비일비재한 일이었다.그랬다.구운은 마을 요괴들에게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요요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아휘는 거리로 나섰다.스승인 구운이 캐오라고 했던 약초들을 생각하며,날이 저물기 전에 끝낼 수 있기를 바랐다.산으로 가려면 시장을 거쳐야 했다.시장은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옷 가게,상점이 다닥다닥 붙어있다시피 했다.안 그래도 길이 좁은데 수레 따위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 요괴도 있었다.오후,날은 후텁지근하고 땅이 지글지글 끓었다.이렇게 날은 무더웠지만 아휘의 기분은 산뜻했다.밥을 든든하게 먹었기 때문에 기운도 충만했다.아휘가 시장에 들어서자 과일 가게 총각이,아휘! 하고 부르더니 빨갛게 잘 익은 과일 하나를 던졌다.그것을 아휘는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늘 있는 일인지 아주 익숙한 솜씨였다.총각이 던진 과일은 ‘애와’라 불리는 과일이었다.크기가 어른 주먹만 하고 맛이 아주 달았는다.깨물면 속이 하얗고 까만 씨가 많았으나,씨가 작고 부드러워 씨 채 먹을 수 있었다.“아휘! 또 산에 가는 거야?”총각이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대답이야 뻔하기에 아휘는 씨익 웃기만 하고 대답은 하지 않았다.아휘의 순박한 얼굴을 보고는 총각이 히히 웃으며 말했다.“솔직히 말해봐. 산에 딴 여자라도 숨겨 놓은 거 아냐? 하여간 얼굴 반반 놈들이 더 한다니까. 혼자만 재미 보지 말고 나도 좀 같이 놀자고. 요요한테 이르기 전에.”라고 짓궂은 농 짓거리를 했다.아휘는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애와를 한입 베어 물었다.우물우물 씹으며 가던 길을 마저 갔다.“구운 님께 안부 전해주라고!”뒤에서 총각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아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알겠다는 의미로 손을 휘휘 흔들었다.아휘가 지나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알은체를 했다.생선 가게 아줌마는 오늘 요요가 좋아하는 ‘인어 비늘’이 참 싱싱하다며,가장 좋은 것은 따로 빼둘 테니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들르라고 했다.‘인어 비늘’은 갯벌에서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이었다.여름 이맘때쯤 인어들이 비늘 갈이를 할 때만 구할 수 있었는데,더군다나 여기는 외따로 떨어진 산속 마을이니 아주 귀한 상품이었다.인어 비늘은 비린내가 심하고 아무 맛이 없었다.없었지만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지고,먹은 날은 잠을 자지 않아도 기운이 생생할 정도로 종일 후끈 몸이 달아올랐다.요요는 인어 비늘을 요리하지 않고 날것으로도 참 잘 먹었다.씹는 식감이 좋다나 뭐라나 그렇다고 했다.요괴들은 기본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색사(色事)를 밝히기 마련이었다.수레에 짐을 잔뜩 싣고 끌고 가던 아저씨는 대낮부터 꽤 취한 상태였다.그는 아휘를 발견하고 가던 길을 멈추었다.허리춤에서 지난번 꾸었던 술값이라며 돈을 갚았다.갚아야 할 돈 200전에서 30전이 모자랐지만, 아휘는 웃으며 그 돈을 받았다.아저씨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아휘의 손을 잡아끌었다.아휘는 정중하게 사양을 했다.“자넨 너무 성실해.”아쉬워하던 아저씨가 히히 웃으며,이따가 먹을 술값이 모자란다며 200전을 빌려달라고 했다.아휘는 아저씨한테서 받았던 170전에서 30전을 더 보태어 돈을 빌려주었다.“이거 늘 고마워서 어쩌나. 딸꾹, 나중엔 꼭 같이 한잔하자고.”아휘는 대답하지 않고 빙긋 웃어 보이기만 했다.이렇게 인사를 하고 농담을 건네고 친절을 베풀고,너도나도 아휘에게 말을 걸었다.그리고 끝에 가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꼭 한마디씩 했는데,바로 구운의 안부였다.마을에서 구운이 차지하는 위치도 위치지만 모두 구운의 덕을 보았던 까닭이었다.그런 그들 하나, 하나를 아휘는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이 상대하며 웃어 보였다.웃어보였으나 사실 아휘는 한구석으로는 괴로운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그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볼 때면 시선을 돌려버리고 싶은 마음을,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속으로 무진장 애를 쓰는 그였다.그는 고독했다.요요가 있고 친구가 있었다.겉보기에 더는 외로울 일이 없어야 했지만,자신은 이곳에서 여전히 그들과 다른 존재였기에,그 스스로가 완전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월흔, 요괴, 그것은 혈통의 문제만이 아니었다.혈통도 혈통이지만 아휘가 괴로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그들은 모두 한 번씩은 죽었다는 까닭이었다.과일 가게 총각도, 생선 가게 아줌마도, 술주정뱅이 아저씨도, 길모퉁이 꽃집 아가씨도,그 아가씨의 식구들도, 저기서 옹기종기 모여 놀고 있는 아이들도,마을 요괴들 죄다 죽은 적이 있었다.그리고 죽인 장본인은 바로...이런 어두운 생각에 잠겨서는 시장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였다.뒤에서 걸어오던 여자애 하나가 다가와 부딪혔다.뒤에서 부딪혔으니 아휘는 잘못이 없었다.하지만 그는 딴생각에 빠져있느라 어떤 식으로 부딪혔는지도 몰랐다.그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미안해요, 말하고는 여자애가 괜찮은지 안색을 살피려 했으나,여자애가. 괜찮아요, 재빨리 아휘한테서 떨어졌다.떨어지자마자 여자애는 시장 끝을 향해 달려갔다.발이 무척이나 빨라 벌써 저만치 가버린 상태였다.조금 민망해진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여자애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멍하니 보았다.얼핏 봤지만, 이 마을에 사는 요괴가 아닌 게 분명했다.입고 있는 옷이 그랬고 생김새가 그랬다.인간족인가? 어느 부족 사람이지? 처음 보는 이방인이었다.아휘는 갑자기 싸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을 살폈다.아! 없다!여자애가 아휘의 돈주머니를 훔쳐 간 것이었다.늦잠을 자서 약초를 캐려면 시간이 많이 없는데 망했다.아휘는 여자애를 뒤쫓기 시작했다.여자애를 쫓아오다 보니 아휘는 산속에 있었다.원래 목적지가 이곳이긴 했으나 이런 식으로 올 줄이야.여자애는 꽤 발이 빨랐지만,아휘도 월흔으로 변한 뒤로는 인간이었을 때랑은 달랐다.체력이며 속도며 힘이며 훨씬 월등해졌다.솔직히 인간 여자애 하나쯤은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버릴 수 있었다.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아휘는 제어장치를 이용해 자신의 힘을 자제하고 있었다.아휘의 왼쪽 귀,귀에는 링 모양의 자그마한 은색 귀고리가 있었다.그것이 제어장치였다.타의든 자의든 이 제어장치가 풀려,아휘가 자제력을 잃는 일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할 일이었다.“장난은 여기까지다. 꼬맹이.”아휘는 약초를 캐기 위해 가져왔던 바구니 따위의 짐을 자리에서 벗어 던졌다.거추장스러운 짐이 사라지자 몸이 가벼워졌다.미미한 바람, 울창한 숲의 냄새,쭉 뻗은 나무들은 초록이 무성했고,나뭇가지 사이사이를 비집고 햇살 기둥이 내려왔다.조각, 조각, 조각난 하늘의 파랑.그는 높이 뛰어올라 단숨에 나뭇가지에 올랐다.이어서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옮겨갔다.유연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또 움직임이 정확하고 우아했는데,나뭇가지를 살짝, 살짝, 건드리는 정도로라 이파리 흔들리는 잡음 하나 없이 조용했다.그런 식으로 몇 번 옮겨 다니니 아휘는 금세 여자애를 앞질렀다.마지막 나뭇가지,그는 풀쩍 뛰어내려 여자애 앞을 가로막았다.“꺄악!”정말 깜짝 놀랐는지 여자애가 뒤로 풀썩 주저앉았다.아휘는 이제야 여자애를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정말 자그마하고 연약한 여자애였다.저렇게 겁에 질린 사슴 같은 새카만 눈망울을 하고서는 소매치기라니.아휘는,애초에 자기가 돈주머니를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곳은 아닌지,그래서 여자애를 오해한 것은 아닌지,순간 착각할 뻔했다.하지만 분명 아까 술주정뱅이 아저씨한테 돈을 꿔준 것이 생각났다.그는, 아니지 아니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아휘는 다시 여자애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차림새를 보니,교복을 모르는 아휘에게는 난생처음 보는 독특하게 생긴 옷이었다.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치마가 저렇게나 짧다니.여자애가 무릎을 세운 채 구부리고 있어 안에 팬티가 보였다.약간 보였지만 보고는, 아휘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그는 고개를 팩 돌렸다.그리고 이렇게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여자애가 소리를 꽥! 지를 정도니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가출? 그렇다면 돈이 궁할 만도 했다.아야야.엉덩이가 아픈지 여자애는 일어날 생각은 않고 엉덩이만 문질러댔다.아휘는 힐끔 시선을 여자애한테로 돌렸다가,여자애가 여전히 그 자세로 앉아 있기에 얼른 다시 시선을 저리로 홱 돌렸다.깍쟁이 같은 생김새와 달리 꽤 털털한 성격인 여자애 같았다.“일어날 수 있겠니?”일부러는 아니었지만,요요말고는 다른 여자가 입고 있는 속옷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아휘는 민망하고 부끄러웠다.벌게진 얼굴을 돌린 채,시선은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까만 곤충에 두었지만,그는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그런 상태로 아휘는 여자애에게 손을 내밀었다.여자애가 손을 잡으면 일으켜 줄 셈이었다.그가 손을 뻗는데,갑자기 칼날이 쉭 하고 위에서부터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다.아휘는 재빨리 손을 거두며 뒤로 물러섰다.간발의 차이였다.살기를 미리 감지했기에 다행이지,아휘가 아마 보통 인간이었다면 팔이 잘리고도 남을 순간이었다.살기.아휘의 온몸에 바짝 힘이 들어갔다.본능적으로 적의를 느낀 그는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적비!”적비였다.리의 비명을 들은 그는,그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했다.성가시게.입으로는 그렇게 툴툴댔을 테지만,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리가 있는 쪽으로 향했던 것이다.빠르기가 아주 순간이동 맞먹는 수준이었다.그는 리에게 손을 뻗는 아휘를 발견했고,아휘가 리를 헤치려 한다고 판단했다.판단이 끝나자마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단번에 팔을 잘라낼 셈이었다.후다닥 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적비 뒤에 서서는 빼꼼히 얼굴만 내밀었다.적비가 왔으니 이제 한시름 놓았다는 얼굴이었다.‘월흔족!’저 눈은 월흔의 눈이다!적비를 보는 아휘의 눈이 커다래졌다.적비의 황금색 붉은색 눈동자.눈동자는 예리했으며 살벌하기 그지없었다.그 퇴폐적이고 아름다운 눈동자가 제일 먼저 아휘의 눈에 들어왔다.방금 팔 하나가 잘려나갈 뻔했다는 공포감도 삭 잊고,아휘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기뻤다.같은 동족을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아휘는 지독한 고독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아휘는 오해라고 설명하고 싶었다.그러나 그가 뭐라고 입을 떼기도 전에 적비는 칼끝을 들이댔다.그 칼끝은 아휘의 회색 눈동자를 겨누었다.뭘 봐. 적비가 눈빛으로 차갑게 쏘아붙였다.그러더니,“저리 가 있어.”리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마디 툭 내뱄었다.툭 내뱉더니 아휘의 눈을 도려내려는 듯,가차없이 회색 눈동자를 향해 달려들었다.찰나의 순간이었다.단 일말의 공격, 무자비한 기세로 달려드는 그것은,아휘, 오로지 그 하나만을 노리는 일념이었다.고도의 집중력과 짙은 농도의 살기였다.공기를 가르는 칼날, 한 줄기의 태양빛,칼끝이 번쩍였다.그리고 적비의 황금색 붉은색 눈동자.뜨거운 살의가 담긴 눈동자를 번뜩이며,적비가 씩 입꼬리를 올렸다.희고 조용한 달의 스러져가는 그림자처럼,아름다운 치사량의 미소였다.이번에도 간발의 차이였다.아휘가 순발력이 있었기에망정이지,거침없이 찌르고 들어오는 검의 다음 초식을 읽지 못했다면,그는 단칼에 두 동강이 났을 게 분명했다.애초에 리를 일으켜주려고 뻗었던 오른팔을 노리더니,기어이 오른팔에 상처를 내었다.오른쪽 위팔,꽤 크게 베었는지 피가 철철 흘렀다.조금만 늦었더라면 잘려나갈 뻔했다.월흔의 종족은 타고난 능력의 한계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데,자기도 월흔이지만 이 적비라는 남자는 잠깐 겨루어 보았으나,상당한 실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딱 보니,아휘도 제어장치를 달고 있지만.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고 있었다.웃음기 있는 얼굴,장난치듯 검을 휘두르는 것 같아 보여도몸놀림 하나, 하나, 저것은 필시 장난이 아니다.보통내기가 아니라는 것은 저 눈빛만 봐도 알겠다.악의 없는 순수한 살기로 가득한 눈빛.가까스로 나뭇가지 위로 피신한 아휘는,즐기는 건가?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검술만 해도 저러한데,검술 말고도 그가 가진 능력은 무엇이며 어디까지일까?저녁나절,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고,아휘는 오늘 약초 캐기는 틀렸다고 생각한다.돈주머니를 굳이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이미 버렸다.자기는 적이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다.일단 목숨은 구하고 보자.아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흑요!”아휘의 눈동자는 오른쪽이 초록색, 왼쪽이 회색이다.아휘가 소환술로 흑요를 소환하니,두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다.거센 바람이 일었고,주변의 나뭇잎이며 풀떼기,자갈들이 휘몰아쳐 공중으로 치솟았다.검고 두꺼운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그리고는 솟구쳐 올랐다.마치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형상이었다.그 검은 안개를 아휘가 손바닥 안으로 빨아들였다.휘이익, 순식간에 검은 안개는 빨려 들어갔고,그는 거둬들인 검은 안개를 손안에 움켜쥐듯 주먹을 꽉 쥐었다.주먹에는 시퍼런 핏줄이 사납게 부풀어있었다.서서히 흩어져 사라지는 검은 안개의 잔해.흑요가 모습을 드러내었다.“크르르르.”흑요의 새카맣고 거대한 몸집,그 공포스런 위압감은 실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히 시선조차 마주칠 수 없을 정도였다.흑요의 황금색 눈동자,세로줄의 동공이 적비를 보고 넓어졌다가 좁아졌다.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흑요는 목표물이 무엇인지 알았다.주인의 정신과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다.크르르르.적비가 한쪽 눈썹을 추켜 올렸다.그는 흑요를 보고도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저 동네 똥개를 보듯 했다.“가라. 흑요.”“크아아앙!”덩치는 거대하고 육중했지만 흑요의 몸놀림은 유연하고 재빨랐다.정면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가 하면,날쌔게 몸을 돌려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밀었다.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바위도 깨부술 듯한 치악력,걸렸다 하면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갈고리 같은 손발톱,흑요는 적비의 움직임 족족 읽어내며 사나운 기세로 몰아붙였다.“크아아앙!”흑요의 파괴력에 적비는 적지 않게 놀랐다.흑요는 그에게도 말로만 듣던 흑요였다.이 짐승이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이렇게 직접 상대해보니 예상외의 실력에 그는 속으로 감탄했다.적당히 상대해가며 스스로 꼬리를 내리도록 할 셈이었는데,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흑요의 집념이 상당하다.저렇게 적비의 칼에 여기저기 베어 피를 흘리면서도 끈질기게 공격해 오다니.아까 손발을 써서 갈비뼈 몇 개 부러뜨려 놨는데,이를 악물고는 끈질기게 버텨내고 있다.정말 지독한 녀석이다.하지만 똥개는 똥개일 뿐.애완동물로 전락한 주제에 주인에게 꼬리나 흔들 것이지 주제를 모르고 덤빈다.짜증 나는군.알아서 기면 목숨만은 살려주려고 했는데,아무래도 이 짐승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슬슬 계속 상대하기가 귀찮아진 적비는 이제 끝장을 내기로 결심했다.들고 있던 칼을 버렸다.저 정도의 흑요라면 이런 수준 낮은 무기로 찔끔찔끔 상대할 놈이 아니었다.그는 영력을 쓰기로 한다.“크르르르.”풍.바람은 만물을 초월한다.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은,세상 만물과 하나가 되기도 하고 만물을 지배하기도 한다.거센 파도를 일으키고 사나운 불꽃을 태우며,땅과 쇠는 갈라지고 부서진다.나무의 생과 사는 바람이 정한다.만물의 연결고리.하지만 바람은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는다.바람은 자유롭다.바람을 지배하는 자,그것은 곧 만물의 지배를 의미했다.흑요를 노려보는 적비의 황금색 붉은색 눈동자의 눈빛이 번뜩였다.그 순간 흑요 주변으로 칼 같은 바람이 휘잉 하고 휘몰아치더니,크고 작은 자갈이 섞인 흙먼지가 시야를 가렸다.아무렇게나 생겨 모난 잔돌들이 흑요를 마구 때렸다.시야가 탁한 탓에 흑요는 섣불리 공격하지 못했다.돌에 맞아 바짝 약이 오른 흑요는,크르르,송곳니를 드러내며 틈을 노렸다.바람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흙먼지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다.점차 엷어지는 흙먼지의 장막,그 장막 너머 흑요는 흑발을 나부끼며 우뚝 선 그림자를 보았고,그림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감지했다.“크아아앙!”흑요는 적비에게 달려들었다.달려들었으나,어찌 된 일인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지가 꽁꽁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그랬다. 흑요는 그물에 걸린 것처럼 바람에 휘감겨 버린 것이다.“크아아앙!”적비가 꼴 좋다는 듯 씨익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그는 다음을 실행했다.적비의 동공이 확 수축했다.눈을 가느다랗게 뜨며 마치 무언가를 꽉 조이는 듯했다.크아아앙! 흑요가 사납게 몸부림을 쳤다.하지만 치면 칠수록,바람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져 흑요의 살점을 파고 들어갔다.바람은 마치 칼날이 얼기설기 얽힌 그물과 같았다.가늘고 긴,실 같은 바람이 깊숙이 스며들며 흑요의 살집을 베고 있었다.시커먼 가죽이 벌어졌고 가죽 밑의 시뻘건 생살이 드러났다.벌어진 틈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다.크아아앙! 흑요는 고통으로 울부짖었다.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그물을 끊어내려는 듯,아가리를 벌린 채 고개를 이리저리 마구 휘둘렀지만,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 바람을 끊어낼 수 있을 리가 없었다.“흑요!”이대로 가다가는 흑요가 위험했다.사지가 갈가리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었다.뼈째 몸 전체가 조각, 조각, 조각나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될 터였다.아휘는 흑요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했다.흑요의 실체를 거두려고 힘을 썼다.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흑요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어째서?! 영문을 몰라 당황했으나,그는 흑요를 노려보는 적비의 눈빛을 보고 곧 깨달았다.그만큼 흑요를 쥐고 놓아주지 않으려는,적비의 집념이 아휘의 힘보다 더 강한 까닭이었다.제길!아휘는 비참한 표정으로 흑요를 바라보았다.아무리 기를 써도 적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흑요는 반 포기상태였다.크르르르.내상을 입었는지 흑요의 입가는 피로 젖어있었다.피가 섞인 침이 줄줄 흘러내렸다.흑요는 그렇게 적비를 노려보고만 있더니,더 서 있을 기력조차 없는지,커컥,피를 토하며 쿵 쓰러지고 말았다.그래도 적비는 힘을 거두지 않았다.잔인하게 파고드는 바람,벌어진 살점에서 이젠 뼈가 다 보일 지경이었다.여기저기서 피가 콸콸 쏟아졌고,흑요는 원래 검었던 짐승인지 붉었던 짐승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에 젖어 있었다.어쩔 수 없군.아휘는 제어장치를 풀기로 결심했다.그가 막 귀고리에 손을 갖다 대려는데,“그만해!”리가 돈주머니를 던져 적비의 뒤통수를 맞혔다.아휘에게서 훔친 돈주머니는 갈색이고 투박한 천으로 만들었고,안에는 적지 않은 동전이 들어있어 무게감이 있었다.아마 꽤 아팠을 것이다.리는 정확하게 적비의 뒤통수를 퍽! 맞히고는,후다닥! 적비를 지나쳐 흑요에게 달려갔다.겁도 없이 흑요 가까이 다가가는 리를 보고,적비는 재빨리 영력을 거두었다.괴물 같은 흑요도 흑요지만,흑요를 감싸고 있는 영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빤히 봤을 리였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요에게 손을 대려고 하다니.도대체 용감한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적비가 빨리 손을 쓰지 않았다면,리의 손모가지는 뎅강 날아가고도 남았을 것이다.위험의식이라고는 도무지 없군.그렇게 생각하며 적비는 리가 던진 돈주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방해를 받아 그는 기분이 나빴다.더군다나 머리를 맞아 심히 불쾌하다.이게 뭐지?적비는 돈주머니를 노려보았다.그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뭘 모르는 리는 콸콸 쏟아지다시피 하는 피를 막아보려고 했다.두 손을 모아 벌어진 상처를 덮었다.하지만 길게 벌어진 상처를 감싸기에 손은 너무 조그마했다.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달린 손은 두 개 뿐이니 제대로 손 쓸 길이 없었다.상처는 이렇게나 많은데.어떡하지? 안절부절못하고 있는데,아휘가 위에서 휙 날아와 리의 옆에 사뿐히 착지했다.적비는 경계해야 할 인물이지만 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는 리가 흑요를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겼다.적비와는 무슨 사이인지 몰라도,부상을 당한 흑요를 이렇게 구해주고 싶어 애쓰는 모습이 고마웠다.돈주머니니, 소매치기니,피치 못 할 사정이 있으려니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괜찮아요. 며칠 치료하면 금방 회복할 거예요.”이 녀석 꽤 강하거든요.아휘가 다정하게 웃어 보였다.사실 며칠 가지고는 턱도 없는 상처였지만,리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주인이 그렇다고 말하며 평온한 표정을 지어 보이니,리는 “휴, 다행이다. 괜찮을 거래.” 이렇게 흑요에게 말을 걸며 싱긋 웃었다.거친 숨을 몰아쉬는 흑요의 세로줄 눈동자,그 눈동자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했다.기운이 다 빠진 까닭도 있지만,웬일인지 흑요는 온순하게 굴며 리가 쓰다듬도록 허락했다.워낙 피 투성이라 흑요를 만진 리의 손도 전체가 피로 젖고 말았다.꺼릴 만도 했으나 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리가 손을 떼자,끼잉,흑요가 앓는 소리를 냈다.마치 더 만져달라고 응석을 부리는 듯했다.알아들었는지 리는 흑요의 갈기를 쓸었다.다른 데 비해 비교적 피로 덜 젖은 새까만 털이 부드러웠다.그런 리를 보고 아휘는,보통 인간 여자애라면 흑요의 무시무시한 생김새를 보고 기절할 법도 한데,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하니 그 모습이 신기했다.무섭지 않나요? 물으니, 뭐가요? 하고 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흠. 이 아이, 물건일세. 아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했다.적비, 저 잔혹하기 짝이 없는 남자한테 돈주머니를 집어던져 머리통을 맞춘 아이다.그랬다.환상국에 떨어지자마자,리는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아가리를 벌리는 요괴를 바로 코앞에서 봤다.어디 그뿐인가?적비가 맨손으로 요괴 머리통을 뽑아버리는 장면까지 목격했다.그리고,이 세계가 처음인지라 그래도 나보다는 낫겠지,찰떡같이 믿고 적비를 졸졸 따라다녔다.따라오면서 진작에 느낀 바지만,이 사람이 가는 길은 왜 죄다 험난하기만 한 지.같이 다니면서 내내 본 생물체라고는 멋모르고 덤벼대는 잔챙이 요괴들과괴상하게 생긴 짐승들이었다.그러니 이 세계에 사는 짐승들은 하나 같이 다 살벌하게 생겼고,흑요도 그런 짐승이겠거니 별생각이 없던 리였다.그리고 적비가 저렇게 잔인하게 요괴 나부랭이들을 손봐주는 일 또한,하루 이틀이 아니기도 하고.적응이 되고 면역이 되었다고나 할까.게다가 리는 원체 뭘 보고, 듣든, 그러려니 하는 성격이었다.리에게 흑요는 그저 동물이었다.그저 동물인데 아무리 목숨을 위협했다지만 적비가 그렇게 잔인하게 구니,차마 더는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저 짐승은 단지 주인을 구하려는 갸륵한 짐승일 뿐인데.뿐인 데다가...리는 적비에게 미처 돈주머니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냈다.절대! 절대! 절대로 적비가 흑요를 죽이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오직 그런 생각 하나만으로 적비를 저지했다.나중에 자신에게 닥칠 후환 같은 건...사실 처음부터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다.무섭지 않나요? 라는 아휘의 질문에 리는 잠깐 곰곰이 생각하더니,이어 조잘조잘 떠들어대기 시작했다.“저 사람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렇게 해까닥 머리가 어떻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말하면서 검지를 머리 옆에다 대고 빙글빙글 돌렸다.“괜찮아요. 누가 해치려고 할 때만 그러니까. 그래도 대충 비위만 맞춰주면 같이 다닐만해요.”리는 아휘가 말하는 무서운 대상이 적비를 두고 한 말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다.아휘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긴 한데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그보다는...저런 말을 저렇게 목소리도 죽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할 수 있다니,진짜 담이 큰 아이다.담이 크거나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거나.들었을까?아휘는 시선을 머리 옆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리의 손가락에서 떼었다.적비의 눈치를 상당히 보는 것이다.그는 적비를 찾았는데 찾을 필요도 없이 적비는 리의 뒤에 서 있었다.그는 팔짱을 낀 채 냉담한 표정을 하고는 리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그런 그의 표정은 한 대 쥐어박을까? 말까? 가늠하는 것이 분명했다.그가 뒤에 있는 줄 모르는 리는 계속 적비의 흉을 보았다.사실 아휘는 리에게 있어,이 세계에 온 후로 적비 다음으로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였다.적비는 차가운 사람이었고 말수가 적었다.그나마 한다는 말조차 시끄러워, 가 일상다반사였다.리는 대화다운 대화가 너무나도 고팠다.“제가 사정이 있어서 같이 다니고 있긴 한데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만 하면 시끄러워, 뭐 좀 물어보면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니, 그렇게 시끄러우면 귓구멍을 콱 막아버리지 귀는 왜 달고 살아요? 이러다 나는 입에 거미줄 치고 저 사람은 귀에 거미줄 치게 생겼다니깐요. 있잖아요. 나는 내가 무슨 나무토막이랑 같이 다니는 기분이에요.”리는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하도 시끄럽다고 하니까 군말 없이 따라다니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저 사람,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중간계로 갈 거라고 했는데 여기가 중간계가 맞긴 맞아요? 여기 마을도 겨우 찾았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리는 대답을 기다렸지만 아휘는 대답하지 못했다.그도 그럴 것이,그의 눈동자는 리와 적비를 번갈아 쳐다보느라 아까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네가 말하는 나무토막이 바로 뒤에 있으니 살고 싶으면 어서 입을 다물라는 의미를 담아 리에게 연신 눈빛을 보냈었다.보냈지만 안타깝게도 리는 그렇게 눈치가 있는 애가 아니었다.생김새는 새침하니 말이 없게 생겼는데 말이 참 많은 아이네.하하. 아휘는 등에서 식은땀이 다 났다.“나무토막이라 불만인가?”리가 무언가 또 말하려는데,뒤에서 적비가 나지막이 말했다.히익!그 목소리를 듣고 리가 얼른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차마 고개는 돌리지 못하고,화났어요? 라고 묻는 눈으로 아휘를 쳐다보았다.그런 것 같아,라는 의미를 담아 아휘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리는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다.만 개의 바늘이 등에 파바바박 꽂히는 기분이라 왠지 등이 따끔따끔했다.그래요! 불만이에요!이렇게 이 기회에 속 시원히 터놓자,이럴 작정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했는데 돌리려는 찰나,적비가 리를 지나쳐 흑요한테 바짝 붙어섰다.“일어나 똥개.”적비가 흑요를 발로 툭 찼다.목소리도 차분하니 별 표정은 얼굴이었다.그런데 그런 얼굴이 더 화나 보여서 보는 사람을 주눅 들게 했다.싸우자고 시비를 거는 것 같지는 않았다.그렇다고 일어나라고 격려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아니, 이미 다 끝난 싸움이었다.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 흑요한테 괜한 발길질인지 모르겠다.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적비가 흑요를 발로 차니까 흑요가 엄살 아닌 엄살을 피웠다.아까만 해도 적비를 아주 갈가리 찢을 작정으로 사납게 굴더니,그 사나웠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태도를 삭 바꾸어 비명을 지르다시피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물론 거의 반죽음이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하지만 깨갱깽깽! 깽깽! 낑낑대는 소리가,어쩐지 일부러 더 그러는 느낌이었는데,그 느낌이 맞았다.흑요는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똑똑한 짐승이였다.즉, 셈을 할 줄 알았다.흑요는 리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적비가 영력을 재빨리 거두는 것을 보았다.그리고 바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저 월흔 녀석한테 걸리면 죽음이다.하지만 녀석은 저 여자애 말을 잘 듣는다.아닌 것 같지만 분명 그러하다.마치 녀석은 나처럼 저 여자애의 소환수 같은 존재인 것이다.흑요는 리에게 붙기로 결심했다.낑낑대도 너무 낑낑대니까 어째 수상한 기분이 들어,적비는 흑요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시선을 맞추니 흑요가 슬금슬금 시선을 피했다.그러더니 다시 낑낑 앓는 소리를 냈고,나 좀 봐달라는 듯 벌벌 떨리는 앞발을 힘겹게 들어 리의 허벅지를 살살 긁었다.“아우, 아우, 아우우.”참 애처로운 앞발 짓이었다.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다.흑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그런 흑요의 속셈을 눈치채고 아휘는 속으로 감탄했다.흑요와 아휘는 척하면 척하는 사이였다.서로 눈짓만 주고받아도 상대의 다음 마음 까지 읽어낼 정도였다.아휘는 흑요가 왜 저리 낑낑대는지 알았고,아휘도 같은 생각이었다.아휘는 또 생각했다.그것은 제어장치 같은 것이다.자신에게 귀고리가 제어장치라면,적비, 이 남자에게 제어장치는 이 여자애일지도 모르겠다고.“너무하잖아!”불쌍하지도 않아?리가 벌떡 일어나 흑요와 적비 사이를 가로막았다.좌우로 쫙 벌린 두 팔,리는 야무지게 적비를 노려보았다.시끄럽게 구는 것은 적비가 아주 질색한다는 것도 잊고,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아까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아파서 우는 거, 안 보여? 그리고 똥개라니. 이게 어딜 봐서 똥개야? 이렇게 귀여운데. 진짜 너무하네.”그때 아휘는 슬며시 올라가는 흑요의 입꼬리를 보았다.그 꼴을 물끄러미 보고 있자니,아무리 내 둘도 없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소환수지만 참 얄미운 얼굴이라고,어쩐지 본인이 다 민망해지는 기분이었다.“귀여워? 네 눈에는 이게 귀여워 보이나?”“그래! 왜, 불만있어?”사실 귀엽지는 않은데 리는 귀엽다고 웃겼다.어쩌다 그냥 내뱉은 말인데 도로 번복하기가 싫었던 까닭이었다.아 그러시냐는 듯 적비가 피식 조소했다.놀랍게도 그는 리가 감히 혼내는 말투로 말 많게 떠들었는데도 시끄럽다는 둥, 입 다물라는 둥, 뭐라고 하지 않았다.평소 같으면 사람 무시하듯 콧방귀나 뀌던 사람이,오늘은 웬일인지 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상대하기 시작했다.“불만이 있을 리가. 나는 나무토막인데.”잘됐군. 나무토막보다는 귀여운 똥개가 낫지. 너, 이게 뭐지?이렇게 말하면서 적비가 주먹을 휙 들어 올렸다.올리면서 노려보기는 리를 노려보았는데,정작 놀라기는 아휘가 화들짝 놀랐다.아직 적비에게 잔뜩 경계심을 품고 있던 그는,그게 자기를 때리려는 것인 줄 알았던 까닭이었다.아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펄쩍 높이 뛰어올랐다.근처에 있는 나무로 피신했다.본능에서 우러나온 처신이었다.그가 성급하게 툭 내려앉은 나무는,나뭇가지가 굵직굵직하고 회색빛이 도는 갈색이고,넓은 이파리에는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 나무였다.위아래로 흔들리는 나뭇가지,이파리들이 서로 스치며 바스스 소리를 내었다.적비의 주먹 안에는 아휘의 돈주머니가 쥐어져 있었다.적비는 단순히 돈주머니를 보여주려고 손을 올린 것인데,아휘가 겁을 먹고 지레짐작한 것이다.당황한 아휘의 얼굴이 빨개졌다.무지 창피한 짓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깨달았지만,이미 그는 뜬금없이 나무로 올라간 별난 사람이 되어있었다.역시 그렇게 생각하는지,적비는 기분 나쁜 녀석이라는 눈빛으로,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빛으로,둘은 아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그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을까,마구 머리를 굴렸다.그는 연기를 했다.“하하하! 여기서 보는 경치가 아주 좋군요.”그는 저 멀리 경치를 감상하는 척하며 손날을 이마에 댔다.아, 상쾌한 바람,바람을 음미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아휘의 눈은 가느다랗게 휘어있었다.그때 흑요는,삐뚜름하게 올라간 아휘의 입꼬리가 겁나게 어색하다는 것을 알았다.그 꼴을 보고 있자니,아무리 내 둘도 없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주인이지만 꼴이 참 모양 빠진다고,차라리 난 안 볼란다,아예 시선을 돌려버렸다.오히려 자기가 더 부끄러워지는 기분이었다.적비는 아휘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었고,리는 눈치가 모자랐다.둘은 무심히 아휘한테서 고개를 돌렸다.“말해봐. 이거 어디서 났지?”적비가 다시 추궁했다.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흘낏,나뭇가지에 서 있는 아휘를 쳐다보았다.아휘는 나무에 몸을 기댄 채 편한 자세로 있었는데,여전히 시선은 먼 곳에 두고는 진짜로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 듯했다.다 들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리는 자신을 감싸주려는 아휘의 마음을 알았지만,적비한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어쩐지 그런 기분이었다.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으로 아휘를 가리켰다.“저 사람 거.”“그런데?”“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내가 살짝 모르게 가져왔다고나 할까?”“훔쳤군. 왜지?”왜라니!버럭 하며 리가 고개를 쳐들었다.얼굴은 울상 그 자체였는데,조금은 화가 난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이었다.리가 말했다.“난, 오빠를 꼭 찾아야 한다고. 그러려면 그때까진 여기에서 쭉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살려면 나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야. 혼자는 싫어. 미안하지만 나는 네가 필요해. 그렇지만, 웬만하면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하지만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나는 그러니까... 내 옷 정도는 내가 해결하고 싶었단 말이야.”무릎 위 길이의 감색 주름치마,하얀 블라우스,길이가 짧은 체크 무늬 넥타이,리는 교복을 좋아했다.살던 세계에서는 언제나 단정하게 교복을 입었다.햇볕에 잘 말린 교복을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을 했었다.교복에서는 바삭바삭한 햇살 냄새가 났다.하지만 환상국에 온 뒤로는 갈아입을 옷이 없었었다.어쩔 수 없이 단벌 신세로 있어야만 했다.교복은 다림질은 고사하고,여기저기 이상한 얼룩이 묻어있는 데다가 시큼한 냄새도 났다.하얬던 스니커즈는 때가 묻어 회색이 되었다.확실히 교복은 이곳 환상국에서는 보기 드문,지나치게 튀는 복장이었다.적비도 리가 어디에서 온 인간인지 몰랐다.환상국은 다양한 인간 부족이 살고 있기도 하거니와,오래 같이 있을 사이도 아니니 굳이 캐묻고 싶지도 않았다.또, 들었다 해도 적비는 원체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다.그가 믿었을지는 모를 일이었다.그래도 그대로 같이 다니면 어디를 가든 눈에 띌 가능성이 컸다.주위의 이목을 끌어 성가신 일에 휘말리면,같이 다니는 이쪽도 매우 곤란했다.적비는 리가 입을 다른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정체불명의 소녀. 당분간이다.오빤지 뭔지만 찾으면 된다니,적비는 당분간만 같이 다니는 것쯤이야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리를 처음 만난 ‘흰 모래 숲’은 마계와 중간계의 경계에 있는 숲이었다.그는 리가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었는데,안타깝게도 적비는 방향감각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다.그는 절대 인정하진 않지만.아무튼 중간계로 간다는 게 길을 잘못 들어 마계로 들어선 것이다.그 사실을 모르는 둘은 어찌어찌하여 아휘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다.당시만 해도 둘은 거지꼴이나 다름없었다.그도 그럴 것이 적비의 옷은 찢어진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리의 옷은 튀기도 튀었지만 너무나도 꼬질꼬질했다.그들은 옷가게에 들어갔다.너도 하나 골라 둬.말해 두고 적비는 옷을 갈아 입으러 가게 안쪽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갔다.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리가 보이지 않았다.가게 주인에게 물었지만,주인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리가 사라진 줄도 몰랐다.적비는 기분이 이상했다.귀찮은 군식구 하나 덜었으니 홀가분할 만한데,이상하게도 마냥 마음을 푹 놓고만 있을 수 없었다.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이 없어진 기분,예상치 못한 상실감에 그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다.그리고 그 믿을 수 없는 자신의 반응에 스스로도 놀랐다.불안, 아쉬움, 서운함,어쩐지 짜증이 확 났다.말도 없이 없어지다니.그는 가게를 나와 리를 찾았다.그는 리가 입은 교복을 머릿속에 떠올렸다.그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리의 비명을 들은 것이다.여기서 꽤 거리가 있어 보통 청력으로는 들을 수 없는,어림없는 거리였다.하지만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적비는 저쪽이 확실하다고 확신했다.바람을 타고 숲 냄새가 났다.“나는 옷을 고르라고 했지.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옷값을 치르기 위해 돈을 훔쳤다니.대충 상황을 짐작한 아휘는 속으로 매우 놀랐다.아휘는 리를 시장에서 만났다.그렇다면 적비 저 남자도 시장에 있었다는 얘긴데,시장에서 리의 비명을 듣고 여기까지 그렇게 빨리 올 수 있다니.정말이지 그의 능력은 그 한계가 어디까지란 말인가?아휘는 마른 침을 삼켰다.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내라고 한 적은 없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쓸데없이.”“뭐라고? 너,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차가워. 난 다 널 생각해서...”“넌 내가 왜 저 똥개를 반죽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그야...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리는 말문이 막혀버렸다.흑요가 그를 공격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단순한 대답을 듣자고 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았다.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지금 그게 중요해?그보다 리는 서운한 마음이 더 컸다.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팩 돌리고는 입을 꾹 다물어버렸다.그런 리를 적비는 말없이 노려보았다.말도 없이 사라지질 않나, 돈이나 훔치 질 않나,기껏 편들어 줬다니 자기는 정작 똥개 편이나 들질 않나,정말 이 아이는 사람 짜증 나게 한다.그리고 짜증을 내는 자기 자신이 더 짜증이 난다.적비는 리의 블라우스 목깃 뒷부분을 바짝 움켜쥐었다.움켜쥐고 번쩍 드니,리는 가볍게 들렸고 발끝이 허공에서 붕 떴다.“뭐, 뭐야, 이거 놔!”힘없는 여자를 무슨 짐짝 들 듯이 이렇게 막대하다니,리가 윽박을 질렀다.질렀지만,지르거나 말거나 적비는 리를 아휘에게로 홱 던졌다.“꺄아악!”포물선을 그리며 리는 날아갔다.그러고는 정확하게 아휘의 품에 떨어졌다.얼떨결에 받았지만 아휘는 리가 다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았다.그 바람에 아까 적비의 칼에 베여 벌어진 오른팔 상처가 더 벌어졌다.순간적으로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곧 표정 관리를 하여 아픈 티를 내지 않았다.리는 안정감 있게 아휘에게 안겨있었다.가지런히 모은 두 다리가 아휘의 왼팔에 걸린,공주님 안기 자세였다.적비와 아휘, 둘 다 순발력이 상당했기도 했지만 의외로 합이 잘 맞는 듯했다.이어, 아래로 휜 리의 배 위에 아휘의 돈주머니가 툭 떨어졌다.“네 마음대로 해. 삶아 먹든 지, 구워 먹든지.”아휘에게 적비는 그렇게 말했다.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며,리를 넘겨 줄 테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그는 미련 없이 팩 뒤돌아 등을 보였다.자리를 뜨려는 듯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흑요를 지나치다 말고 우뚝 멈춰 섰다.그러더니,“이 똥개 먹이로 줘도 괜찮겠군”그렇게 말하고는 콧방귀를 뀌었다.“나쁜 놈! 나를 버리는 거야!”리는 기가 막혔다.비명 한 번에 쏜살같이 달려올 땐 언제고,돈 좀 훔쳤다고 사람을 이렇게 쉽게 내치다니.사람이 차가워도 정도가 있지.이건 너무하다.나도 안다.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나쁘다는 거.아는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그래도 무진장 서러워 죽겠단 말이다!“그렇게 가버리면 난 어떡하란 말이야!”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그랬더니 가려고 뒤돌아있던 적비가 다시 뒤돌아 마주 보고 섰다.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 그지없었다.“네가 내 돈도 훔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고 곁에 두지?”“너한텐 그렇지 않아!”“그렇든, 않든, 난 이젠 너한테 신경 안 쓰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그렇게 말하고는 적비는 매몰차게 돌아섰다.리는 정말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그의 태도를 보아하니 잘못했다고 삭삭 빈다고 해서 봐줄 것 같진 않았다.그래도, 잠깐만! 그를 붙잡으려고 소리쳐 불렀다.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점점 멀어지는 적비의 차가운 등.그 등을 보는데, 리는 어쩐지 더는 차마 그를 부를 수가 없었다.진짜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걸까?깊고 오래 만난 사이도 아닌데,그저 멀어져가는 적비의 등을 보고 있자니 눈물만 줄줄 흘렀다.앞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할지가 걱정돼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다.지금 이 순간, 그런 문제는 리의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다.그런데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다.그것을 리,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그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쓸모없게 되고 말았다.나는 왜 이 모양일까?결국 이런 식으로 내버려지게 되었다.가지 마, 제발 날 두고 가지 마!소리쳐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저렇게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더욱 그랬다.리는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렸다.그렇게 멀어져가는 적비의 등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했다.바람이 불었다.어느새 반쪽 달, 달은 차갑고 하얬고,달을 끼고 얇은 구름이 바람을 따라가고 있었다.조용히, 그리고 자유롭게